

12. 2월 + 0
2월 2주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2
2016





12월의 테마토크

다양한 예술 아이디어의 실현법, 크라우드 펀딩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불과 5년 안쪽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플랫폼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예술인·창작자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펀딩에 성공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

소리와 이야기를 촘촘히 엮는 아티스트 이자람

모든 사람은 각자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 삶의 페이지를 늘려가며 채우는 이야기가 유난히 흥미롭고 깊어 두고두고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자람 역시 책에 비유하면 그런 아티스트다. 노래 〈내 이름은 예술이〉로 목소리를 알리고 춘향가 최연소 완창(8시간)으로 스무 살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는 독보적인 소리꾼인 동시에 다수 판소리극을 만든 창작자이며 인디밴드 '아마도이자람밴드'의 리더다. 음악과 이야기를 공통분모 삼아 활동 영역을 넓히며 '소리'에 대해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를 만나보았다.



진실 혹은 대담

2016년 문화예술계 돌아보기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이 펼쳐졌다. 올해도 문화예술계는 크고 작은 이슈로 어수선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등 문화계를 들뜨게 한 이슈가 있었던 반면, 해를 넘겨 이어진 검열 논란은 '블랙리스트' 공개로 정점에 치달았고 미술계의 위작과 대작 사건은 불투명한 시스템의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문화+서울]은 1년간 지면에서 다룬 이슈들을 중심으로 올해 문화예술계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쟁점 1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예술가

문화예술계에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열' 의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블랙리스트'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국정농단'이 문화체육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는 무너졌다. 극심한 혼란 이후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제자리를 찾고 회복될 수 있을까.

contents

바로잡습니다

[문화+서울] 2016년 11월호(vol.117) 테마토
크 코너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축제 현
장' 기사 중 p17에 언급된 아카이빙 전시의 음
악 작곡가는 '유하' 작곡가가 아닌 '김인현' 작곡
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문단의 내용이 일
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웹진(www.sfac.or.kr/munhwaplusseoul)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
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
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
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
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발행인의 말 | 주철환의 더다이즘, 세 번째

04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엄지희

테마 토크

다양한 예술 아이디어의 실현법, 크라우드 펀딩

08 크라우드 펀딩의 기본 알아보기 | 콘텐츠 성장의 싹을 틔우는 크라우드 펀딩

10 이렇게나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 여기, '좋아서' 예술이 탄생하는 곳

16 <바람난 미술×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 '누구나 생활에서 미술을 즐긴다'는 가능성

사람과 사람

20 소리와 이야기를 춤추며 엮는 아티스트 이자람 | 이 소리꾼의 웅숭깊은 세계

26 섬유공예가 오화진 | 우연의 조각을 잇다가 만난 필연의 세계

30 진실 혹은 대담 | 2016년 문화예술계 돌아보기

36 예술가의 밥그릇 |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장동수

38 서울 할나 | 이영광 시인의 시 <춧불> 중에서

이슈&토픽

40 쟁점 1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예술가

44 쟁점 2 | 잇따른 성추문 사태로 진통 앓는 문화예술계

46 화제 | '서울시 민간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문화재단 메세나 프로젝트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50 공간 1 | 서울문화재단~성동문화재단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52 공간 2 | 음악 전문 서점 '라이너 노트'

54 공감 1 | 연극 <백석우화>와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56 공감 2 | 전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과 <해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

58 공감 3 | 책 <미리도 괴리도 업시>와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60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62 메모리 인 서울 | 한국 영화 성장기의 한 풍경

64 서울 단상 |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 이윤희의 연남동 정착기

66 강상준의 썰(設) | 지금 대중음악의 가장 핫한 장르 '힙합'

68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현대음악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

70 서울 건축 읽기 | 한강에 건축적인 상상력을 더한다면

72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이소연 작 <낮잠>

1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4 12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세 번째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요즘 광화문에선 주말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한낮의 축제가 아니라 늦은 밤의 축제입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타납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의 대오가 되어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노래 부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촛불과 촛불은 거대한 은하수가 되어 어둠을 몰아냅니다.

시(市)가 시(詩)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가슴속에선 윤동주의 시 구절 하나가 풀꽃처럼 피어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제목은 〈쉽게 썩어진 시〉인데 시인은 낮은 목소리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움을 물려주기 싫은 사람들은 ‘빛이 되는 문(光化門)’ 앞에서 ‘문밖에 있는 그대’를 애타게 소환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촛불들의 열병식을 보며 (자칭 동심의 보루, 전직 연출가이자 교육자, 현직 문화재단 대표인) 저는 엉뚱하게도 〈은하철도 999〉의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햇빛이 쏟아지네.” 노래를 읊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화문 인근에 사시는 ‘그분’이 작년 어린이날에 한 ‘명언’도 오버랩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꿈이 이뤄집니다.”

촛불잔치가 벌어지는 광화문 일대엔 지하철역이 여럿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저는 경복궁역 7번, 광화문역 1번, 시청역 3번 출구를 자주 드나듭니다. 지하철 안에서 목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의 표정도 살핍니다. 언젠가는 제가 앉게 될 경로석도 물끄러미 살펴봅니다. 스크린도어에 얹힌 슬픈 사연도 떠올립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잠동사니를 파는 상인도 마주칩니다.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 삶이 힘들어서 도움을 청하는 장애인들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커다란 스토리 창고입니다.

문화(culture)는 지배가 아니라 재배(cultivate)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년 풀뿌리문화주간 거리축제 제목은 ‘문화철도 2017’입니다. 서울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거리축제이며 동시에 1년간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응원한 모든 아이템이 집대성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팎은 시민들의 시화전, 사진전으로 도배될 것입니다. 국악동호회와 직장인 밴드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국회의사당역에선 의원들과 시민의 합창이 울려 퍼질 겁니다. 명동역에선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성당들의 시대〉가, 혜화역에선 시민연극제가 공연되고 지하철 부근의 학교들에선 동문화·운동회가 열릴 겁니다. 〈무한도전〉 〈1박2일〉 〈런닝맨〉 제작진에게 부탁해 대중스타들도 지하철에 태울 겁니다. 팬들과 지하철 안에서 벌이는 숨바꼭질, 술래잡기, 보물찾기도 흥미로울 겁니다. 장르 불문 게릴라 콘서트도 시내 곳곳에서 열릴 겁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기차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을 아합, 봉합이 아닌 결합, 융합, 통합시킬 ‘문화철도 2017’에 즐겁게 동승해주시시오. 시대가 어두워도 별들은 그 빛을 숨기지 않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주철환





〈Before the dust wall〉
collage and pencil, iron shavings on paper | 130.3×162.2cm | 2012



〈살아있는 무엇도 당신보다 새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 | 112.1×112.1cm | 2015

이달의 표지 작가 염지희

나는 인물과 사물, 동·식물 등이 찍힌 흑백사진을 오려 붙인 콜라주에 연필 드로잉을 더해 마치 실재하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 낸다. 작품은 주로 영화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상영되는 듯한 형상인데, 해석이 모호한 다수의 장면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을 만드는 기법인 콜라주는 나에게 재현을 대신하는 기법이 아니다. 종종 맥락을 알 수 없는 사진을 보거나 내 멋대로 맥락을 삭제시킨 채 사진을 들여다보면 사진 속 대상들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특히 흑백사진을 오렸을 경우 서로 연관도 없는 것들이 모여 마치 한 장면이 있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연출됐는데, 이때 약간의 기괴함과 함께 재미를 느낀 것이 콜라주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콜라주는 내가 바라보는, 나를 둘러싼 세계와 비슷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공간은 서로 맥락도 없이 쪼개져 있어서, 나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편집해 한 편의 영화처럼 잘 다듬어진 세계로 만들거나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영화처럼 보이던 내 주변의 세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본 순간, 시나리오의 찢어진 조각만 보는 것처럼 매우 낯설게 느껴졌고 서사는 허구가 되어 무너져버렸다. 그 후 나를 둘러싼 모든 장면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고 순서도 없이 뒤섞인 그것들이 나는 무섭기만 했다.

글 염지희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그것들을 조금은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내 눈앞에 이해할 수 없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내가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 눈에 기괴할 뿐 분명 그들은 각자 고유한 이야기와 세계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치 귀속말처럼, 꿇길 듯 꿇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의 화면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표지작
〈당신의 가슴에는 침묵이 있고, 집어삼킨 말들이 있다〉
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 |
112.1×112.1cm | 2015



염지희

홍익대학교 영상영화학과 회화과,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올해 11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6번째 개인전을 마쳤으며 콜라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Gate-opener〉(Beijing Commune, 2014), 〈청년미술프로젝트 2013〉(EXCO, 2013) 등 신진 작가로 소개되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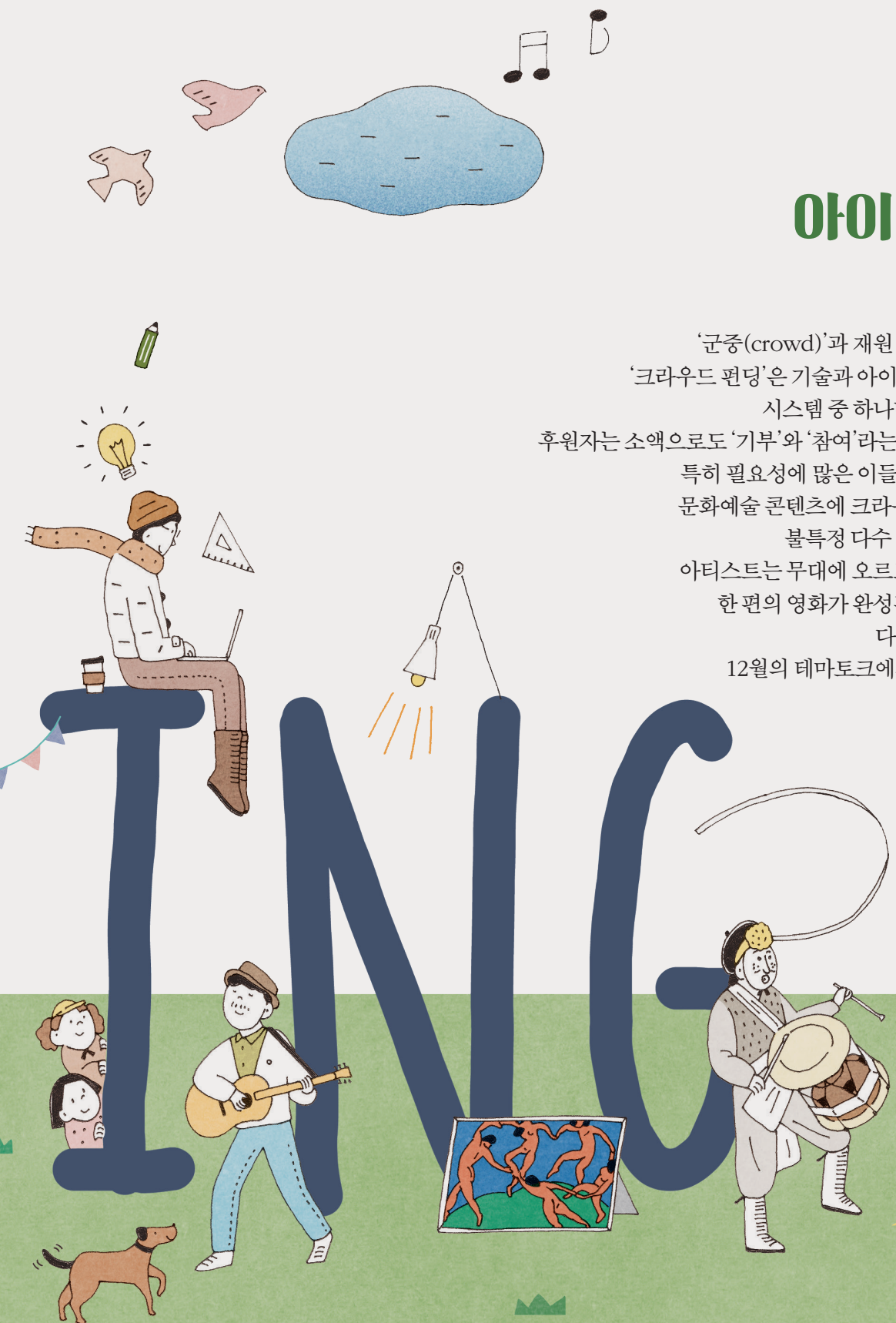


〈희망은 비틀리고 당신을 기다리며 부른다〉
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 | 112.1×112.1cm | 2015



다양한 예술 아이디어의 실현법, 크라우드 펀딩

‘군중(crowd)’과 재원 마련(fund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크라우드 펀딩’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중 하나다. 프로젝트 개설자는 목표를 이루고
후원자는 소액으로도 ‘기부’와 ‘참여’라는 만족을 얻는 윈윈(win-win) 시스템.
특히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 요원했던
문화예술 콘텐츠에 크라우드 펀딩은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 대중의 자발적인 의지와 재원이 모여,
아티스트는 무대에 오르고 이야기는 책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된다.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크라우드 펀딩.
12월의 테마토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아본다.



크라우드 펀딩의 기본 알아보기

콘텐츠 성장의 싹을 틔우는 크라우드 펀딩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불과 5년 안쪽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플랫폼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예술인·창작자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펀딩에 성공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능한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 또는 해결책을 얻어내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한다. 소액의 기부 혹은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방법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크게 기부형(donation), 보상형(reward), 대부형(lending), 지분 투자형(equity)으로 분류된다. 기부형은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기부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해피빈,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같이가치·비카인드·씨 펀 등이 있으며, 보상형은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소규모 후원이나 선구매하는 방식을 따르는 텀블벅·펀루·굿펀딩 등이 해당된다. 대부형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아이디어 오디션, 팝펀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분 투자형은 머니옥션, 오피툼과 같이 소규모 창업 또는 아이디

어에 투자하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해외에서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연계된 다수의 영리형 펀딩 사이트가 있어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지분 투자형의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 시작 단계며 대부분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형식이다.

모금액을 프로젝트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모금 목표액을 정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 모금액을 모두 가져가거나 가져갈 수 없는 ‘All or nothing’ 혹은 목표 금액 도달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목표 기간의 펀딩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Keep it all’의 유동적인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모금 성공에 따르는 금액적인 보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지만 목표 금액의 모금에 성공한 이후 대부분 유형형의 보상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결제 방식의 경우 대부분 기부의사를 보이면 즉시 이체하는 ‘선불’ 결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텀블벅은 예외로 자체적 후불 결제 방식을 고안해 후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에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고안해 국내 소셜 펀딩 업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은 모금 참여자 대부분이 지인이거나 관계자들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SNS가 주된 홍보 매체로 이용되다 보니 뉴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 일반인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SNS를 주로 활용하는 20~30대의 경우 주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지만 모금 결제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택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료와 연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플랫폼 업체가 모금액을 받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모금 종료 후 2주 내에 모금액을 수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업계의 규칙을 감안하면 펀딩 업체는 모금액이 입금되기 전에 프로젝트 개설자에게 모금액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이로 인해 결제가 가장 용이한 모바일 결제를 모금 사이트에서는 꺼리고 있고 이는 결국 좀 더 적극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군중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화제가 된 가장 성공적인 해외 사례

는 미국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미국의 스타트업 ‘페블테크놀로지’가 ‘페블타임’이라는 스마트 워치의 신제품 개발 비용 10만 달러를 모금하고자 했으나 100배를 넘어선 1000만 달러를 모아 화제가 되었다. 국내 사례 중에서는 2015년 고려대 ‘영철버거’의 재개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가 눈에 띈다. 고려대학교 후문에서 노점으로 시작한 영철버거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제공하며 고대의 명물이 되었으나, 영업 적자로 인해 문을 닫았다. 폐점한 영철버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대 정경대학생회가 재개업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공개된 후 5일 만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6000여만 원을 모금한 바 있다.

개인, 혹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예술단체 등에 크라우드 펀딩이 갖는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수요자들은 초기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잠재적 소비자들이 개발하려는 제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단체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모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액 결제가 가능하며 나아가 모금 행위 자체가 입소문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콘텐츠의 홍보 마케팅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사업 초기에 수요 예측이 어렵고 제작과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업이나 상대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단순히 스타트업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예술단체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이슈를 제로명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



로도 확대되고 있다. 와디즈에서 지난해 진행한 충북 보은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와 올해 초 진행한 위안부 소녀상 설립 프로젝트 등은 각각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역사 인식 개선에 공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크라우드 펀딩

정부, 시민단체, 민간 기업 등이 정책적·전략적으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개인 기부에 주력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포털 사이트 다음은 사용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콘텐츠 생산자를 후원하는 ‘뉴스펀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펀딩을 시작하고 2016년에는 이를 ‘스토리펀딩’으로 확장 브랜딩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든 제품 혹은 프로젝트가 엄청난 운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형태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종자돈)를 만들거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품 혹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견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소비자 혹은 기부자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의 구조를 연구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글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재휴협력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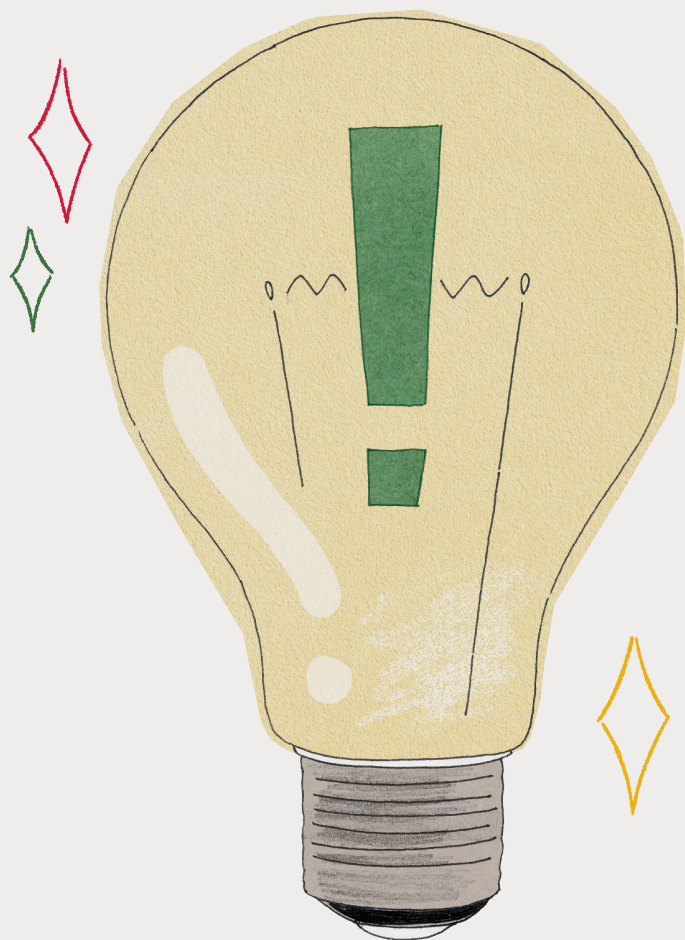
그림
손민정

이렇게나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여기, '좋아서' 예술이 탄생하는 곳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뭐니뭐니 해도 '자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본'의 짐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덜어주는 시스템이다. 누구나 창작을 하고 누구든 창작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문화예술계에서 독립출판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흔히 말하는 '등단'이라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문학을 사랑하고 쓰기를 즐기던 이들은 독립출판을 통해 독자에게 그들의 작품을 전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사진, 글, 그림 등을 개성 있게 담아낸 '독립출판물'이라는 형태로 진행됨은 물론 사진집, 만화책,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매거진 등 기존 출판 시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기 어려웠던 책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제작될 수 있는 환경에는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크라우드 펀딩'의 공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과 콘텐츠 소비 의지가 있는 후원자 모두에게 문턱이 낮다. 창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지 계획을 정리해 공개한다.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 시 후원자에게 지급할 리워드 아이디어도 덧붙인다.) 후원자는 금액의 크기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형편껏 기부하면서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유무형의 만족감을 얻어갈 수 있다. 누구나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고 누구든 원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형성 방식, '문화예술 생태계의 혁신'으로도 불린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알려진 인디고고(www.indiegogo.com)가 첫선을 보인 것이 2008년, 이후 국내에서 2011년에 처음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은 플랫폼의 형태와 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초기 제작비 마련이 어려웠던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고, 영화와 공연, 음악 등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도 증가하는 추세다.



ucanstart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출발선을 끊은 플랫폼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플랫폼은 2011년에 문을 연 텀블벅(www.tumblbug.com)이다. 제작·창작자들에게 활짝 열린 한국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 사이트로, 해를 거듭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후원금만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앞선 4년간의 누적 후원금을 추월한 수준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등록된 출판 분야를 포함해 미술, 디자인, 만화, 패션, 요리, 공연,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2015년 기준 총 2500여 건 진행되었다. 특히 디자인과 출판 분야의 젊은 제작·창작자들의 프로젝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년 그해의 성과를 정리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선보이는 메뉴를 마련하고, 최근에는 프로젝트를 개설한 창작자들의 인터뷰를 실어 펀딩의 기능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모여든 이들의 문화와 경향을 짚어내는 등 플랫폼 이상의 기능을 사이트에서 발휘하고 있다.

텀블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간단한 결제 시스템이다. 모금 수수료(8~9%)가 있지만 모금액에 대한 지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프로젝트 후원 기간이 종료된 후 후원자가 미리 등록한 출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후원액 출금 시스템도 이용자의 불편함을 덜어준다.

2015년 텀블벅의 성장

텀블벅은 한해 동안의 후원금액과 후원인의 수 등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돼 있는 2015년 자료 '2015@tumblbug'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텀블벅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분야는 게임(7억 원, 24%),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론칭한 분야는 출판이었다. 1분마다 5,561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밀어준 후원자 수가 989명, 100만 원 이상을 밀어준 후원자가 651명에 달한다고. 아울러 가장 많은 이들이 후원에 참여한 요일은 월요일, 가장 많은 후원이 이루어진 시간대는 밤 10~11시라고 한다.

텀블벅과 함께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선두 플랫폼으로 꾸준히 성장한 와디즈(www.wadiz.kr)는 투자형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대중예술, 출판, 웹툰 등 문화예술 콘텐츠는 물론 테크, 푸드, 스포츠, 여행과 같은 대중적인 주목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카테고리는 공공프로젝트, 지난해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현대무용 공연, 휴대전화 케이스, 추모 편지지 키트 제작 등 '기억'을 주제로 한 5개의 펀딩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의 프로젝트가 활발히 개설





되고 관심을 모은다는 것이 와디즈의 특징 중 하나다. 아울러 '와디즈 캐스트'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세계적인 트렌드, 케이스스터디와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이들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에게 추천할 만한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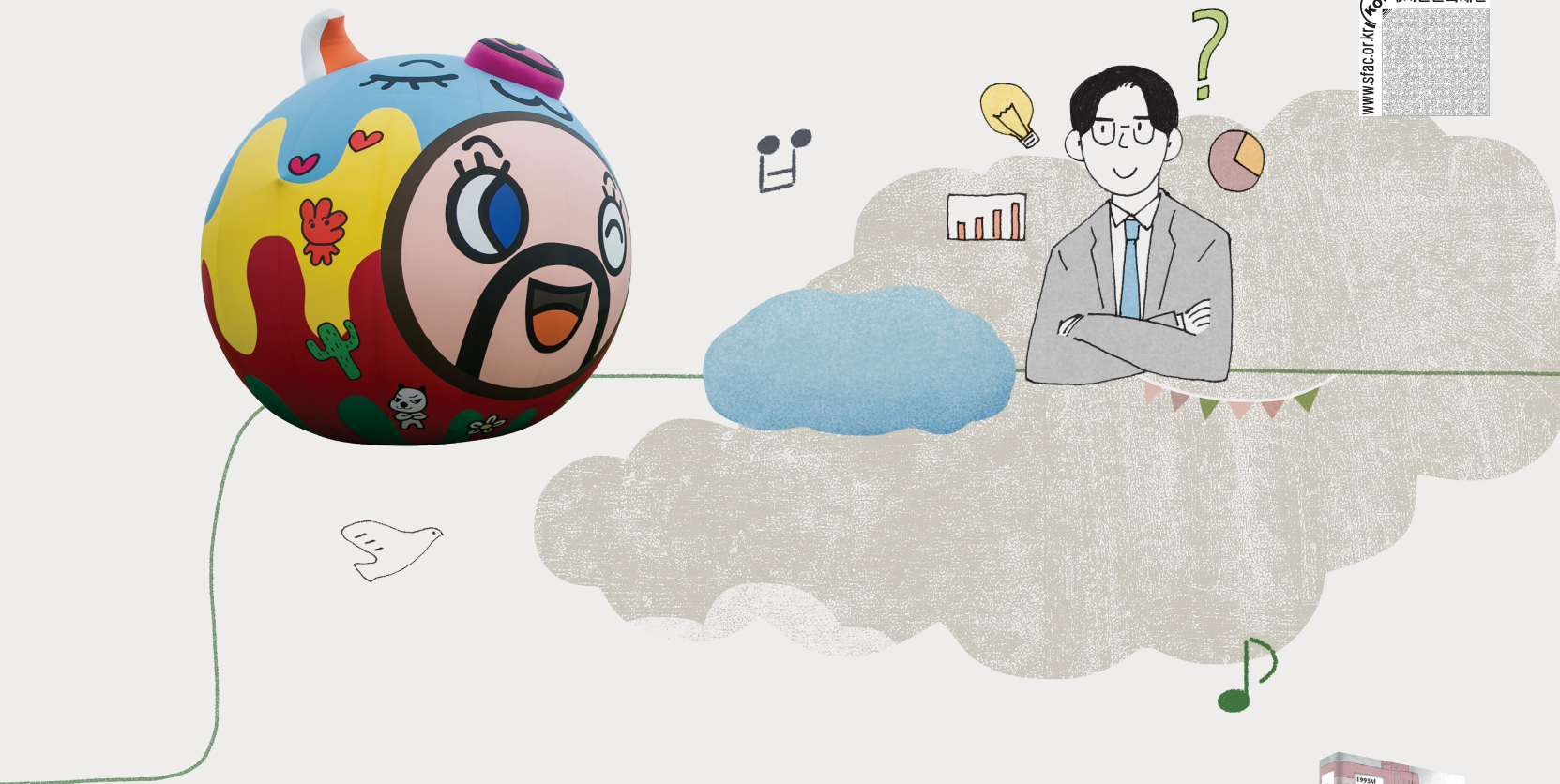
유캔스타트(www.ucanstart.com) 역시 공연, 디자인, 미술, 음악, 출판 등 문화예술 전반의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사이트다. 특히 연극, 춤, 퍼포먼스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100%를 상회하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아이디어와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표방해, 플랫폼 제공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자와 투자자의 연결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지난 2014년 예술기부 플랫폼을 오픈했다. '아트 서울! 기부 투게더'(www.givetogether.or.kr)는 예술기부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규모의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성격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소소한 기부'와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예술지

원사업에 기부하는 '창창한 기부'로 구성된다. 그중 '소소한 기부'는 생애 최초 지원을 받는 신진 예술가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비기너스(Beginners) 프로젝트'와 참신한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플러스 1과 1/2'로 나뉜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도 프로젝트 개설자가 모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 목표 금액 초과 시에는 재단이 목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초과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보너스 제도'가 눈에 띈다.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포털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기부 플랫폼은 해당 포털에서 기부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접근성이 높고, 따라서 최고의 인지도를 확보한 플랫폼이다. 기부가 특별한 일이기보다는 적은 액수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포털 사이트의 펀딩 플랫폼은 기부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역할을 해왔다.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재단법인 해피빈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해피빈 나눔기부와 공감펀딩(happybean.naver.com), 그리고



카카오(kakao)에서 운영하는 스토리펀딩(storyfunding, daum.net)을 들 수 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과 캠페인 중 '나눔기부'는 참여자가 단순 기부로 후원하는 기부형, '공감펀딩'은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후원자에게 금액별로 '리워드'가 돌아가는 보상형 펀딩이다. 나눔기부는 모금을 원하는 공익단체의 신청에 의해 프로젝트가 개설되며 공감펀딩은 개인이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는 형태. 형태가 다르듯 개설돼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 역시 차이가 있다. 나눔기부에는 인권, 환경, 지구촌 재난과 재해, 빈곤, 노인 지원 등 사회·공익적인 주제들이 중심에 있으며, 이 중 문화예술 관련 주제 역시 '대안·공유경제' '문화보호 및 예술발전' 등 공공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네이버 해피빈은 회원가입자들에게 온라인 화폐 개념의 '콩'을 지급해 기부에 쉽게 참여하도록 유도해왔고, 현재는 콩과 함께 자체 온라인 결제 시스템(네이버 엔페이·Npay)을 이용해 결제 역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금액이 다른 플랫폼의 프로젝트들과 비슷할 수준 이더라도 결제 방식과 포털 서비스의 특성상 후원금의 단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많은 프로젝트가 펀딩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

뉴스펀딩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

서울 시민의 기억을 수집하는 프로젝트 〈메모리 인 서울〉은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20주기를 맞이해 '서울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시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이를 당시 '뉴스펀딩'(現 스토리펀딩)에 연재했다(2015. 4. 20~6. 29, 총 11회 연재). 세월호 사건 1주기를 즈음한 시기였기에 연재 콘텐츠는 많은 시민의 공감과 응원을 얻었고, 펀딩 이후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삼풍백화점 기획전시와 구술집 발행이 진행됐다.



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스토리펀딩은 2014년 9월 시작된 '뉴스펀딩' 서비스가 발전한 형태다. 뉴스펀딩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콘텐츠 유료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카카오는 1년 후인 2015년 10월 스토리펀딩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의 형태로 정비했다. 저널리즘, 캠페인, 라이프, 출판, 아트, 스타트업 등 6개의 카테고리별로 프로젝트가 나뉘어 있으며, 누구나 형식과 내용의 제약 없이 스토리펀딩에 창작물을 올릴 수 있고, 이에 공감하는 포털 이용자들이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후원하는 형태로 펀딩이 진행된다. 후원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보다 '스토리텔링' 자체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후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서울문화재단은 2015년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중 '서울의 아픔-삼

tumblbug



음반 전문 크라우드펀딩 아티스트쉐어

아티스트쉐어(www.artistshare.com)는 예술가들의 펀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최초의 문화예술 전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다. 아티스트가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 프로젝트를 개설하면 이를 후원하는 팬들은 음원 다운로드, 공연 참석, 소식지 등을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중 재즈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재즈 뮤지션이 음반을 발매하기 어려운 음악시장 환경의 대안으로서 아티스트쉐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뮤지션과 팬(후원자)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티스트쉐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풍백화점'을 뉴스펀딩에 연재해 관련 전시 및 자료집 제작비 펀딩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바람난 미술-그림가게> 프로젝트를 스토리펀딩과 함께 해 젊은 작가와 그들의 작품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연예술의 활성화도 펀딩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나무(www.artistree.or.kr)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추진된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티스트의 본격적인 창작을 지원하고자 2012년 문을 열었다. 공공성이 강한 단체이기에 공익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특성이 있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따로 없고, 결제 수수료와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예술위가 책임지기 때문에, 공연제작사 입장에서는 다른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다. 다만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예술위 내부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이 프로젝트 개설자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진 점이 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전문성과 이점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2016년 8월부터 예술위는 예술나무를 통한 자체 펀딩 운영은 중단했다. 텀블벅과 연계해 기획과 프로젝트 발제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알려진 상태.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플랫폼과 만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해 보자.

올해 초 등장한 크라우드티켓(crowdticket.kr)은 공연 예술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기존 플랫폼에서 프로젝트의 보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크라우드티켓에서는 보상을 '티켓'에 집중해 '공연예술 전문'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창작자와 후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특성화했다. 프로젝트 개설자는 초기 비용이 없어도 원하는 규모의 공연을 기획할 수 있고, 펀딩에 성공하면 플랫폼을 통해 공연 홍보와 티켓 판매까지 진행할 수 있다. 아마추



어 아티스트나 인디 뮤지션, 소규모 극단 등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음악 등 특정 장르 전문 플랫폼의 등장

사실 국내에 크라우드 펀딩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영화'였다. 5·18 민주화쟁을 다룬 영화 <26년>의 제작비 마련 과정에서 '영화투레'라는 형태로 처음 알려진 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지슬>, 대기업 반도체 공장 직원의 산재 인정 법적 투쟁을 다룬 <또 하나의 약속>,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토대로 한 <귀향> 등 사회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런 까닭에 제작비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영화들이 이를 지지하는 관객의 십시일반으로 제작과 개봉의 기회를 얻었다. 이에 대한 리워드로 영화사는 엔딩 크레딧에 후원자의 이름을 실거나 시사회 초대권 등을 제공한다.

영화계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펀딩 21(www.funding21.com)은 영화주간지 <씨네21>의 자체적인 플랫폼이다.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만 제작이 쉽지 않은 성격의 영화나 소규모 독립영화들이 주요 후원 대상이 된다. 영화의 크라우드 펀딩은 실제 펀딩의 성공 여부

도 중요하지만 펀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리 영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잠재적인 관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이야기된다.

공연, 영화만큼 산업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편차가 큰 음악계에도 지난해 말 음악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뮤직파밍(musicfarming.com)은 '음악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25년 동안 음악을 해온 제작자가 직접 오픈한 플랫폼이다. 음악인들이 펀딩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음악의 세부 장르에 따른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고려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오픈했다. '음악 전문'이라고 하면 앨범 제작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앨범을 비롯해 뮤지션의 공연 홍보와 티켓 판매, 음악 교재와 악기 제작, 연주자의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등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다.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음악 장르별, 콘텐츠 성격별로 분류해놓은 것이 눈에 띈다. 앨범 제작의 경우 음원이 유통되기 전에 펀딩 사이트를 통해 선판매를 하고 그 수입이 음악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음악 창작자들이 거대 음원 유통 채널의 수익 분배에서 부당하게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람난 미술×카카오 스토리펀딩〉프로젝트

‘누구나 생활에서 미술을 즐긴다’는 가능성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목표로 서울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누구나 생활에서 미술을 즐기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온 〈바람난 미술-그림가게〉가 2016년 8월부터 카카오와 협업해 ‘더 가까이 있는 미술, 누구나 간직할 수 있는 미술’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스토리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두 기획자를 만나, 프로젝트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바람난 미술-그림가게〉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미술을 즐기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온라인 플랫폼 ‘스토리펀딩’ 프로젝트를 론칭하며 한 해 동안 두 분이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요, 일단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저는 카카오에서 스토리펀딩 콘텐츠를 프로듀싱하고 있는 스토리펀딩 파트의 김주영(PD)입니다. 서울문화재단과는 2015년 ‘메모리인(人) 서울’ 프로젝트의 다음(Daum) 뉴스펀딩 담당자로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이라는 주제로 수집한 시민의 기억을 뉴스펀딩 사이트에 연재하고, 관련 프로젝트 전시와 자료집 출간을 위한 펀딩에 협업 파트너로 참여했죠.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인연이 있어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강수영 저는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에서 바람난 미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수영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단발성 전시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시민의 생활 공간에서 더 친숙하고 쉽게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확장해보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어요. 2015년 시민청에 설치했던 공공갤러리 〈바람난 미술-그림가게〉 등 오프라인 중심의 미술 플랫폼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모색하게 돼 카카오에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난 미술-그림가게〉의 온라인 버전을 염두에 두었는데 카카오 쪽에서 ‘스토리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는 어떨지 의견을 주셨고 논의 끝에 단순한 온라인 마켓 서비스보다는 의미와 흥미, 양방향 소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 방향을 확정했지요. 올해 바람난 미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신진 작가 32인의 작품 스토리와 작품 소개를 8월부터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전 과정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펀딩 〈바람난 미술-그림가게〉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과 특별히 인상적인 사연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김주영 32명 중 19명이 소개된 현 시점에서 1,4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아졌습니다. 작가 한 분당 3회씩 연재했는데 그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한 회 당 5만~8만으로 상당히 많은 뷰가 나온 상황이지요. 오프라인 전시라면 한 전시에 관람객 5만~6만 명이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젊은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보였다는 게 분명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수영 그림가게 오프라인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관람객 수를 벌써 뛰어넘었으니까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주영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우려가 컸어요. 카카오는 그야말로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않을까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작가 분들과 재단에서 스토리를 워낙 잘 풀어주셨어요. 스토리를 통해 작가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고 이런 면에서 사회현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할까요. 굉장히 따뜻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강수영 무척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김민주 작가의 ‘좋은 꿈을 그렸습니다’ 연재에 달린 것인데, “이 작가를 알게 돼서 정말



카카오 스토리펀딩
《바람난 미술-그림가게》
프로젝트를 기획한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강수영(왼쪽), 카카오
스토리펀딩 파트 김주영.



1~6
카카오 스토리펀딩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에 참여한
(사진 번호 순) 노은주,
이윤서, 이수진, 최수인,
최진호, 김민주 작가.
7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에 1만 원
후원 시 증정된 리워드
‘바람난미술 아티스트
엽서 패키지’.

다행이다”라는 글이었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조금 과한 반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웃음) 김민주 작가의 연재 스토리와 휴식을 주제로 그린 그림은 들여다볼수록 따뜻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누군가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던 위로와 응원이 됐고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일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었지요.

김주영 제가 본 인상 깊었던 댓글은 ‘예술가가 된 미술관 야간경비’ 스토리의 주인공 최병석 작가 연재글에 달린 “아 ○ ○ 멋있다.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실천!”이었어요.(웃음)

그런 응원과 후원을 받게 된 작가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전시장이 아닌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서 자신의 작품과 작업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다수의 다른 작가들

과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지원 담당자로서 느낀 보람도 컸을 것 같은데요.

강수영 갤러리에서 그림 한 점을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이 프로젝트 후원을 통해 모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데도 작가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인전만 다섯 번, 단체전까지 열 번 이상의 전시회를 연 작가 분이 이야기하시길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작가라는 명함을 내밀기가 애매했는데 이번 프로젝트 후원자들이 써준 응원의 댓글을 읽고 큰 힘이 됐다고, 이제 어디 가면 작업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후원도 1만 원, 3만 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금액이니까 작가들도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 어떤 정서적인 연대의 감정을 의미 있게 얻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이번 프로젝트는 리워드가 한정돼 있었어요. 3만 원 짜리 10개, 9만 원짜리 10개 등 수량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려주고 공감을 얻고 그 공감을 확인하는 새로운 장이 열린 셈이죠. 그동안 우리가 바람난 미술을 통해서 얻고자 노력했던 ‘누구나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한다’는 목표의 확장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 같고요. 그런 문화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주영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평가는 종료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든 새로운 시도였어요. 이렇게 다수의 젊은 작가가 소셜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애기하고 후원받고, 또 후원자는 작품을 활용한 리워드를 소장하는 경험을 하고…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순수 미술 시장이 포털 독자에게 무리 없이 소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오픈하니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도 많았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보람 있었어요. 향후에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면 사전에 충분한 기획 단계를 거쳐 스토리도 탄탄하게 구성하고 리워드도 다채롭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기초를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12월에 마무리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들려주세요.

강수영 작가들에게 필요한 작품 제작비나 창작지원금을 모으는 것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전시장의 평범한 관람자가 온라인에서 자발적 후원자이자 팬이 되는 걸 지켜본다는 것은 무척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예술가와 감상자간의 새로운 소통 관계가 형성되는 걸 목격하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김주영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많은 신진 작가와 함께 의미 있고 흥미로운 판매의 장을 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후원에 참여했는데 작품의 맥락을 알고 후원하니, 리워드 작품을 받아볼 때의 감동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신진 작가들이 2차, 3차 스토리펀딩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깊고 넓게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게 다 나갔다고 해도 사실 150만 원이 최대였죠. 처음부터 후원금 목표 달성보다는 신진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중심을 두었고 작가들에게도 대중의 피드백을 받는 기회가 됐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출발은 성공적인 셈인데,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강수영 작가 32명의 작업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작업 현장과 작품 사진을 촬영하고 평론가 추천 글도 받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연계를 하는데 펀딩 성공률이 낮으면 솔직히 속상하지요. 그런데 펀딩이라는 게 돈을 모으는 데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이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스토리를 들

글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사진
김창제

자료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카카오 스토리펀딩

소리와 이야기를 춤추며 뛰는 아티스트 이자람

이 소리꾼의 웅숭깊은 세계

모든 사람은 각자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 삶의 페이지를 늘려가며 채우는 이야기가 유난히 흥미롭고 깊어 두고두고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자람 역시 책에 비유하면 그런 아티스트다. 노래 〈내 이름은 예술이〉로 목소리를 일찌감치 알리고 춘향가 최연소 완창(8시간)으로 스무 살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는 독보적인 소리꾼인 동시에 다수 판소리극을 만든 창작자이자 인디밴드 ‘아마도이자람밴드’의 리더다. 음악과 이야기를 공통분모 삼아 활동 영역을 넓히며 ‘소리’에 대해 새로운 책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Lee Jaram



“비워내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마이크 없이 부채만 있어도
상상의 중점을
찍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자람이 작·작창을 맡은
〈이방인의 노래〉.
2015년 예술의전당에서
초연한 후 국내는 물론
대만, 루마니아 등
해외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판소리의 마법을 믿고 찾고 선보이는 소리꾼

걸출한 소리꾼 이자람은 세계 곳곳에서 ‘이방인의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그녀의 두 번째 판소리 단편선 제목이다. 마르케스의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본 보이지, 미스터 프레이던트(Bon Voyage, Mr. President!)〉가 바탕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인 ‘라사라’ ‘오메로’ 부부 앞에, 고국의 전직 대통령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라사라와 오메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순한 오해 끝에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을 만난다. 그들 역시 한 움큼 성장한다. 이자람은 안내자 역과 함께 홀로 이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판소리는 마법 같은 장르”임을 증명한다.

11월 초에는 대만에 이 마법 가루를 뿌리고 왔다. 현지 국립극단의 초대를 받아 세 차례 공연했다. 대만 공연 직후 경복궁 인근 카페에서 만난 이자람은 “구체적이면서 감각

적으로 잘 놀다 왔다”고 흡족해했다. 특히 ‘관객과의 대화’가 흡족했다고 했다. “관객 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정부지원금이 넉넉한지를 묻는 질문부터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물음까지. (한국에서 이슈가 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도 나왔어요. 세 번째 공연 날에는 현지 공연 관계자들이 많이 왔죠. 한국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12월에는 루마니아로 날아가 또 다른 마법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근 이자람이 개발 중인 신마법은 〈아워타운〉이다. 미국 극작가 손턴 와일더의 희곡 〈아워타운(Our Town)〉(1938)을 1980~90년대 서울 오양구 산월동 어느 동네의 삼도연립으로 옮겨와 판소리로 재창작하고 있다. 이자람이 이끄는 단체 ‘판소리만들기-자’가 두산아트센터와 협업하는 작품으로 내년에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9월 워크숍을 통해 살짝 공개된 장면들만으로 ‘수작’의 기운이 물씬 풍겼다.

‘이자람 판〈응답하라 1988〉’로 불릴 정도로 당시 정서와 분위기가 배어났다. 역시 소리꾼과 고수로만 이뤄낸 그림 같은 순간이다.

삶의 소소한 찰나들(1장)을 지나 사랑과 결혼 등 인생이 무르익는 순간들(2장)을 거쳐 죽음으로 수렴(3장)되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축소‘판’을 말 그대로 단숨에 경험하게 된다. 당시 공개된 장면은 2막 중간까지였는데, 여럿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서정성을 펼쳐 보였다. 현대에 그간 웅크리고 있던 향수라는 것이, 11월 중순 ‘상실의 시대’에 그나마 위안을 안겨준 ‘슈퍼문(super moon)’처럼 뻔뻔히 얼굴을 내밀었다. 이자람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달을 떠올리면서 작창을 했다”고 웃었다. “특히 2막, 3막을 관통하는 것은 달과 태양이에요. 누군가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있고, 한동안은 있을. 어쩌면 인류보다 더 오래 있을 달과 태양이죠. 달과 태양을 마주하는 인간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삶과 죽음을 감각할 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관객과 함께 달을 보는 시간, 일출을 함께 보는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이와 함께 〈아워타운〉의 매력은 오감으로 느끼는 판소리라는 점이다. 폴폴 피어오르는 밥 짓는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1980~90년대 시멘트 위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서거거리던 모래 소리 등. 이자람의 소리, 고수의 북만으로도 삼도연립에서 북작거림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진다. 이자람은 “우리가 살면서 몇 번씩은 가졌을, 공간 속의 모든 촉각을 담으려고 했어요. 장면들을 만들면서 관객과 같이 감각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려고 했죠”라고 설명했다. “달 그럭거리는 소리, 어디서 물 내리는 소리, 옆집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는 소리. 기억의 공간을 예전으로 가져다 놓고 그 주변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종로구 세검정에 위치한 연립에서 살고 있는 이자람은 지금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웃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췌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가족 예배 보는 소리가 다 창문을 넘나들어요. 호호.”

인생에 도사린 ‘태풍’의 시간을 지나며

목소리 단 하나만으로 세상의 온갖 의성어, 의태어를 모두 표현하는 세밀함과 일상을 오롯하게 가져오는 관찰력은 세상을 웬만큼 훑아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녀

의 어딘가에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담아놓고 숨겨둔 주머니가 존재할 듯한 의심 아닌 의심이 드는 이유다. 이자람에게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어떻게 얻냐고 묻자, “세상을 얼마만큼 키클러풀하게 받아들이냐는 물음이나”는 질문이 되레 돌아온다. 해석하면, 다채로움을 얼마큼 빨아들이고 저장하고 있느냐, 정도일 것이다. “저도 거의 세상을 흑백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숙제죠. 흑백이었던 제 삶이 작업할 때 먼지를 털어내고 비로소 애써 색깔을 입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가끔 운이 좋을 때예요. 1년에 8개월 정도는 흑백이고, 4개월 정도는 컬러죠.”

일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방증이다. “반복되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들과 맞닥뜨리는 것이 키클러풀한 거죠. 옛 성인들이 늘 말씀하시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깨달을 수는 없어요. 시인, 성인군자라도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흑백 세상이 먼지를 털어내고 색을 되찾는 대신, 잿빛이 되는 처참한 순간도 있다. 위기를 만나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또는 죽음을 앞두고면서 세상이 재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정말 무의미해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의 웃음도 무의미하고, 가족이라는 것도 굴레 또는 억압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지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은 노력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든

이자람은 작창과 연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김애란의 단편을 원작으로 한 음악극 〈여보세요〉(사진 1)를 무대에 올렸고, 현재 손턴 와일더의 〈아워타운〉(사진 2)을 판소리로 재창작하고 있다.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이 주는 안도감에서
더 좋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요.”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 1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이자람은 그 견뎌야 하는 시간을 태풍이라고 이름 지었다. “근데 그 태풍은 인생에서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오는 데 큰 태풍으로 올 때도 있고, 작은 태풍으로 올 때도 있죠. 철이 되면 오는 그런 태풍처럼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다행히 별이 찾아온다. 그렇게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은 또 살고 또 살아간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해가 쨍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주워 담아요. 태풍 속에 있을 때 태풍 속에 있는 걸 주워 담고, 그 주워 담은 것들 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많고.” 이자람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인생의 회로애락으로 번졌다가, 창작자의 고뇌로 스며들었다.

소리꾼, 작가, 연출가, 배우, 인디 밴드의 리더...

최근 창작자로서 그녀에게 고뇌를 안긴 건 ‘2016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선보인 음악극(또는 연극) 〈여보세요〉다. 김애란의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다. 서울에 올라와 여성 전용 고시원에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20대의 ‘나홀로 일상’을 세

밀하게 톺아본 작품에 공감하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티가 나지 않게 짙어낸 원작이 ‘판소리만들기-자’의 심상치 않은 감각으로,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옮겨졌다. 근데 이 작품의 소리꾼은 이자람이 아니다. ‘판소리만들기-자’ 단원인 이승희가 무대에 올랐다. 이자람은 작가, 연출 역에 머물렀다. 연출만 맡은 게 처음이던 이자람은 〈여보세요〉 작업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다.

“예전부터 해온 질문이었어요. 현재형 질문이기도 하고요. 판소리를 만드는 지금의 작업 형태에서 연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이방인의 노래>와 <아워타운>의 연출인 양손프로젝트의) 박지혜 연출은 숨쉴 좋은 드라마투르기이자 기능적인 연출이며 제1의 관객이지요. 자신의 몸을 잘 변형시켜 판소리를 존중해주는 정말 좋은 연출이에요. 지혜를 보고 있으면 연출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판소리만들기-자’에서 연출을 맡는다면 지금까지 맡아온 연출의 기능과는 다른 연출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래서 〈여보세요〉에 끝까지 매달려야 했다. 스스로에 대해 ‘결벽증’이라고 느낄 정도로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라, 연출로서 ‘땀뻗으면 하는 마음’도 굵게

자리했다. 하지만 “마지막 공연이 탐탁지 않았어요. 결국 ‘난 못했다’고 답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괴롭네요. 시간을 핑계로 또는 시간이 진짜 없어서 집요하게 파고들지 못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죠.”

아마 자신에게 ‘퍼포머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연출로서 해야 하는 것과 인간적으로 ‘나이스한’ 것을 구분하고 조절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지난해 극단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이 연출한 국립극단의 〈문제적 인간 연산〉에서 장녹수를 맡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녀다. 이미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장르를 체화해왔다. 〈문제적 인간 연산〉 역시 한을 극대화한 판소리가 중요한 요소로 사용됐고, 이 지나 연출의 뮤지컬 〈서편제〉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이자람밴드’로 흥대 신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우고, 고민을 멈추지 않으며, 천천히 나아간다

이자람 작품의 또 다른 미학 중 하나는 ‘미니멀리즘’, 즉 비워내는 것에 있다. 화려하고 웅장함에 치중하던 창극이 최근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자람은 이미 비워냄으로써 최고의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아이러니한 장관’을 연출해왔다.

〈이방인의 노래〉 역시 기존 이자람이 선보인 작품에 비해 담백하다. 대표작인 〈사천가〉 〈억척가〉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자랑했다. 그녀의 변화에 〈이방인의 노래〉를 보는 순간부터, 다음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순식간에 번졌다.

“예전에는 비워내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이것 저것 이고 지고 다니는 것이 판소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마이크 없이 부채만 있어도 상상의 종점을 찍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정의 또는 모든 규칙은 다시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10년간 판소리를 만들어오면서 ‘판소리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의 종점에는 아무것도 없음, 즉 소리꾼과 부채, 북과 고수만 있어야 하는데 올해 특히 태풍이 지나가면서 판소리조차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과도한 태풍이었죠. ‘판소리가 무엇인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라는 생각과 함께 위축됐죠.”

이자람은 전통을 좋아하고, 전통 판소리가 주는 힘을 믿었고, 특히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 유산을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 있게 사는 데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를 잘해야겠다, 명창이 돼야겠다 등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소리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자람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질수록 권력이 따라왔고, 사람들이 찾을수록 권위가 붙는 걸 느꼈다. ‘너 정도면 이래야 한다’는 시선도 그녀를 쫓았다.

“저는 늘 전통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걸 안고 작업해왔죠. 그런데 그것조차 버려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려받은 관습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관습적인 생각, 도제 교육이 준 권위의식과 소리꾼과 고수는 어때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에 대한 도의적인 선 긋기와 모든 순간을 의심해야 할 때가 온 걸 깨달은 거죠.”

결국 누가 만들어놓은 틀을 의심하고 격파해야 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의심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적당히 안주하고 눈감으면서 나이를 먹죠. 너무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싸우거나 하죠. 적당히, 편안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착각은 국가, 가족인데, 물론 그 가치를 절대 부정하면 안 되죠.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이 주는 안도감에서 더 좋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요.”

이자람은 이를 위해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며 웃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버텨야 하거든요. 밸런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철학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호호.”

판소리 세계의 큐레이터인 이자람을 무대 밖에서 만나는 순간은, 좋은 책 한 권을 담백하게 잘 읽었다는 찰나로 치환된다. 흥미로운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좋은 양식이 되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담아가게 된다. 그녀의 작품은 인물에 관객이 자신의 입장을 투영해 바라보거나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조감도로 관찰할 수 있는데, 실제 이자람과 대면하면 그 거대한 풍경화를 이룬 여러 세밀화를 접할 수 있다. 이자람 특유의 끈고도 정직한, 하지만 엄하지 않은 소리 또는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맥이 탁 풀리면서 그냥 위로를 받게 되는 이유다. 소리와 이야기를 자신과 촘촘히 엮을 줄 아는 이자람은 그 자체로 장르다.

글
이재훈
뉴스시가지

사진
김창제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섬유공예가 오화진

우연의 조각을 잇다가 만난 필연의 세계

작품을 만들기에 앞서 우리는 흔히 ‘밑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점점 구체화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수정하고 다듬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다. 오화진 작가는 ‘시간과 재료’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날그날 마음에 드는 비정형의 조각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 우연의 조각이 모여 완성된 작품을 그는 ‘운명’이라고 이른다. 어떤 의자, 천 조각, 옷걸이는 그렇게 작품의 운명으로 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중인 전시 <공예공방 | 공예가 되기까지>(8.31~2017. 1. 30)는 공예가 6명의 작품과 시간을 보여주는 전시다.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주무르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일은 사람의 일이자 시간의 일이다. 작품과 함께 전시된, 작품의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고 나면 공예의 의미에 대해 한 숨 고르며 생각하게 된다. 관람 동선 상 마지막 순서에 놓인 것은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입주작가인 오화진 작가의 작품이다. 커다란 상들리에의 빛은 전구를 덮은 모시로 말미암아 은은해져 있고, 그 아래 놓인 침대는 그로테스크하면서 우아하다. 정형화되지 않은 패브릭 조각을 일일이 손바느질하고 오브제로 완성해 세상에 내놓은 그는 정작 완성된 전체 설치의 전시장에서 처음 봤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공예공방> 전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장인에 가까운 공예가 분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시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공예공방>을 기획하신 큐레이터는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제가 참여할 때 국제부에서 독일국가관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작년 봄에 연락을 받고 참여하게 됐어요. <공예공방>은 올해 가을에 오픈했지만 기획자께서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으셨죠. 작년에 저한테 기획안을 설명해주실 때도 이미 틀이 잘 잡혀 있었어요. 정직하게 공예의 기본에 포커스를 맞춘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시장에 설치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손바느질로 만드셨는데 작품을 가까이서 보니 섬세한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작품을 마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2013년에 <울모던(Wool Modern)>이라는 전시 때문에 제작

했던 <체어맨>은 만드는 데 5~6개월이 걸렸고, 이번에 다시 <베드맨>으로 발전시켜 작업하는 데에도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바느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 작업을 하면 바느질의 양이 체감되니까 지루할 텐데, 즉흥적으로 작업을 해서인지 바느질이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형태가 나오고 그게 신기해요.

오히려 작업이 가능되지 않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도중에 지치진 않나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 초조해지거나 지칠 수도 있겠지만 놀이처럼 접근해서인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 체력이나 정신적으로나 훈련이 된 것도 있고요. 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면 그날그날 만들고 싶은 부분을 만들고, 나중에 조립하면서 기한을 맞춰요. ‘오늘 얼굴이나 만들까? 아~ 뼈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키는 대로 만들고 조립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가 나와서 재미있죠. 작업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짜짓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계속해오고 있어요.

언급하신 ‘짜짓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때 여행을 가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외부에서 찾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제 안에서 영감을 얻고 싶어요. 진짜 제 안에서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종이를 무작위로 잔뜩 자른 후 그 중에서 끌리는 것 하나를 골라 그 형태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느껴지는대로 즉흥적으로 드로잉을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중인 전시 <공예공방> 중 오화진 작가의 작품 전경. 상들리에 부분은 작품 <환생>(2016), 침대 부분은 작품 <베드맨>(2013, 2016)이다.

2
<마블러스 맨>
(41×55×140 cm
polyester(polar
fleece), filling, lighting,
stool, etc
needlework, stuffing
2014).

“문화라는 게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 지는 거니까 키워드들이 쌓이면
제 개인의 문화에 대해 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3
〈Bright man〉
(42×40×200cm
polyester (polar fleece),
filling, lighting, etc
needlework, stuffing
2014).

4
〈좋은포수〉
(65×120×195cm
polyester (polar fleece),
filling, antique furniture,
etc
needlework, stuffing
2014).

5
상상마당에서 열린
〈오화진 개인전: Desire〉
(2008) 전경.

6
〈엄마와 아이〉
(100×180×200cm
wool, nylon-wool blend,
filling, aluminum chair,
candlestick, etc
needlework, stuffing
2013).

하는 거예요. 같은 도형이더라도 사과로도 보이고, 아기 얼굴로도 보이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종이였던 게 영감을 주는 도형이 되는 거예요. 도형이랑 저랑 짝짓기를 해서 도형의 운명을 만들어간다고요. 저는 사람에게 운명이 있듯이 작품에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짝짓기 프로젝트’는 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따라가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오브제의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프로젝트예요. 기존의 오브제와 제가 짝짓기를 해서 새로운 오브제를 탄생시키고 그것의 운명을 상상해가며 글을 지어요. 신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장 앉을 의자가 없어서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샀는데 그중 하나는 섬유와 숨을 이용해 변형해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플라스틱 의자가 있지만, 이 의자는 공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미술관을 돌아다닐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3에서는 이미 완성된 작품의 외적인 형태를 바꿔서 운명을 바꿔준다. 외적인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벌어지는 작품의 운명을 추적해보고 여기에 환생개념까지 포함시켜 운명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즉 2013년의 〈체어맨〉이 2016년 〈베드맨〉이 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공예공방〉 전시장 한쪽 벽에는 오화진 작가가 쓴, 베드맨에 대한 짧은 소설 한 편이 A4용지 5페이지 분량으로 전시돼 있다. 폭신하고 편한 침대가 아닌 ‘자각몽’을 꾸게 하는 침대에 관한 이야기다. 오 작가는 ‘계획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 “놀이를 하듯 그들이 지닌 운명에 맡겨 두면 작업이 고돼도 지루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연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 완성된 모습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렸다.

그런데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 작업인데도 일관성이 느껴지네요.

아무리 무작위적인 창작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로 그게 그 사람의 감수성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누적되면서 ‘개인의 문화’가 꾸러진다고 생각하고요.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작업이 저의 본성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들테면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같은 것 말이죠(웃음). 이런 표현은 어떤 영향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많은 분이 이런 기괴한 표현에 대해 무엇이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개인적인 환경이나 트라우마에서 찾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꽤 평범하게 자랐어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기괴한 감수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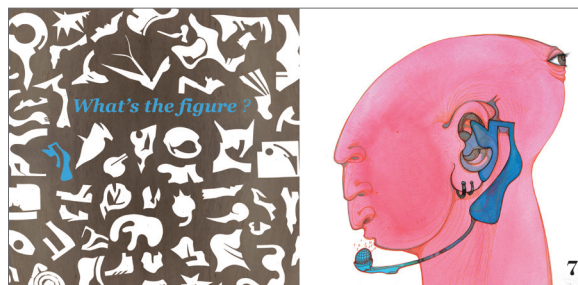
오화진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붉은 색은 흡사 피를 연상시키며 미장센이 뛰어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재료 역시 흥미로운데, 그로테스크한 인상을 주는 작품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울 소재를 이용해 제작된다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이런 경향은 오 작가의 초기작에서도 엿보인다. 금속으로 보이는 차갑고 번쩍이며 날카로운 느낌의 작품은 사실 대부분 인조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당시 그가 견지한 '주제'와도 관련 있는 지점이다. 오 작가는 활동 시기별로 집중했던 주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는데, 활동 초기 그 주제는 '우상 타파'였다.

작품은 기괴한데 사용하시는 재료는 순하다 순한 느낌이에요.

'우상 타파(Iconoclasm)'는 집착하지 않는 정신상태를 추구하는 제 모토를 주제 삼아 풀어나간 작업이에요. 여기서 우상은 집착하는 정신상태를 뜻해요. 우상 타파는 집착에서 한 발 떨어져 보자는 뜻을 품고 있어요. 결국 우상은 곧 허상이니까 스티로폼 같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고 겉은 과시적인 이미지로 광채 나는 단단한 물질처럼 보이게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부드러운 인조가죽이에요. 이런 소재의 특성이 우상 타파라는 주제와 잘 맞았죠. 당시 많이 쓴 검정색 역시 과시적인 느낌과 모든 것을 흡수한다는 색의 특성이 우상과 어울리는 것 같아 선택했어요.

그다음 시기의 주제는 '욕망(Desire)'이었다고 하셨죠?

이 시기부터 '개인의 문화' 구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문화라는 것을 '정신의 소산'으로 보고 이 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선 욕망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가나 민족에게 문화가 있듯이 단위를 축소해 개인에게도 문화가 있다고 가정해본 것이죠. 제 개인의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바라보는 욕망을 다뤄본 것이에요. 그리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제 욕망 자체다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2009년쯤 '운명'이라는 주제로 넘어온 것 같



아요. 이때부터 무작위적인 운명에 맡긴 채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짜깃기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발전됐습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로 6년째 계시는데, 이곳의 분위기도 작품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오브제가 넘쳐나는 환경이 시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이 작업을 하는 데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레지던시와는 달리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작가들은 공모에 재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작가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건 이곳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작업 주변 환경도 편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 분들이 인간적인 배려도 많이 해주세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이런 데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스스로를 '공예가'로 규정하시나요?

저는 공예가 '개인의 문화' 위에서 파생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제가 '공예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예가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엔 제 작업의 수준이나 양이 아직 부족해요. 그렇지만 후에 스스로 자부심 있게 '공예가'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수준과 작업량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개인의 문화 안에서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보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는 본성의 키워드를 테마별로 발표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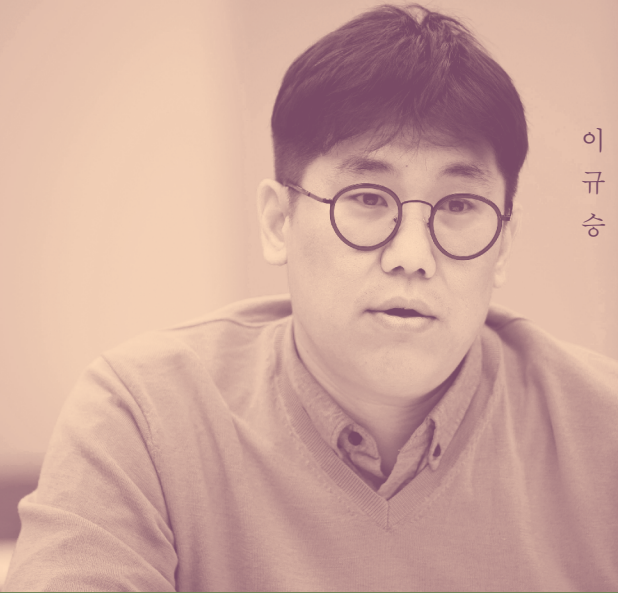


7
〈짜깃기프로젝트
The Mating Project
01_What's the figure?〉
(35×35cm
종이 위에 과슈, 펜 등
2012~2013).
8
〈1300g〉
(70×110×250cm
TV, styrofoam, artificial
leather, feathers,
spangles, PVC film, etc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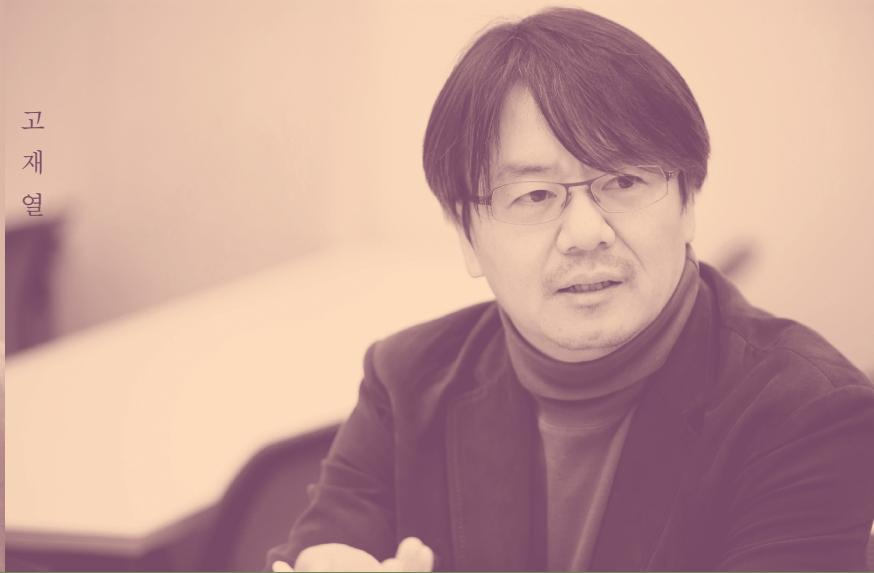
글
이아림

사진
최영진

작품 사진 제공
오화진
ohhwajin.com



이
규
승



고
재
열

2016년 문화예술계 돌아보기

검열·권위주의와 작별하고 창작의 본질을 생각하자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이 펼쳐졌다. 올해도 문화예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어수선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등 문화계를 들뜨게 한 이슈가 있었던 반면, 해를 넘겨 이어진 검열 논란은 '블랙리스트' 공개로 정점에 치달았고 미술계의 위작과 대작 사건은 불투명한 시스템의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문화+서울]은 1년간 지면에서 다룬 이슈들을 중심으로
올해 문화예술계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명
석



이
동
연

사회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토론 고재열 <시사IN> 기자
 이명석 문화평론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과 교수
일시 2016. 11. 9(수) 14:00~16:00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

올 한 해 동안 [문화+서울]에서 다룬 주제들을 뽑아서 문화예술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장르와 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 6개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2016년에 일어난 일을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올 초부터 예술가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도 관련한 것이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 박근혜 연출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입니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공연을 통해 이슈화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문화부보다 정치부 기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검열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 검열과 최근 논란이 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연 저도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체부 소속이다 보니 자문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정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법률 관련 자문을 해주었는데요. 2014년 5~6월부터는 계속 연락이 안와서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블랙리스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사태의 요점은 보수 정부의 회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점이 6월이었고, 유진룡 장관이 경질되고 김종덕 장관이 들어오고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서는, 블랙리스트가 문화부의 각종 이권 사업과 최순실 측근들이 문화 행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과 맞물렸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경질되는 과정이 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주는 일종의 조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고재열 오래전에 당했던 검열과 지금의 검열은 양상이 다릅니다. 예전의 검열은 그 주체가 검찰이나 경찰이에요. 지금은 주도를 문체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문화행정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술가를 가장 잘 알고 지원해야 할 사람이 검열관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사법기관이 검열을 주도할 때는 피해자들이 중요했어요. 여전히

피해자는 중요하지만 검열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건명을 검열관 이름으로 재구성해야 해요.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사건, 국립국악원 용호성 사건과 같은 식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해야 해요.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열했을 때 문화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선생님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검열을 당하면서 양상이 바뀌었어요. 처음 <개구리>는 '이거 문제 아니야' 하면서 시비를 거는 단계였는데, 두 번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서는 '왜 모든 군인이 불쌍해?'라고 적극적인 시비 걸기로 가면서, 세 번째 <소월산천>은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이니깐 안 된다'고 해버리잖아요. 검열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호가 되는 거죠. 피해를 받더라도 알려지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명석 방송이나 영화에서도 CJ그룹의 경영권 침해나 KBS와 MBC 같은 방송사를 장악하면서 내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tvN <SNL 코리아>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했던 '여의도 텔레토비'와 같은 정치 풍자를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코미디나 영화 소재에서도 실제 비판해야 할 정치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치적인 주제 밖으로 달아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직접적으로 검열당하는 문화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를 퇴행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 직원들도 문화행정가이기 때문에 검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위에서 얘기했을 때 나는 이걸 못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 행정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재열 제 생각에는 법대로 하시면 돼요. 현행 판례는 위에서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도 위법이 돼요. 그러니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 본인이 법대로 저항하면 좋겠어요.

이동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예요. 문체부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영화 <변호인>이

여러 주제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창작자들에게 심리적인 회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들은 시대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면

현실에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고재열 <시시IN> 기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어버린 거니까요.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세월호 인 건 분명한 거 같아요. VIP의 뜻이라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비서관은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겠죠. 그러면 장관은 해당 국장에게 내려보내요. 결과적으로 지시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집행하는 사람들은 과장급, 사무관, 서기관들인 거예요. 떠넘기는 거죠.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좌천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권은 말을 안 들으면 잘라버리면서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거든요. 내부고발자가 되어서 수직과 수평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소신을 지키기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상명하복이라는 조직 문화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석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온 전반적인 문화계 개입의 문제와 이번 정권 비선 실세가 문화 사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커진 면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죠. 정권이 바뀌면 반대 쪽에서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심사할 때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동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조기에 터뜨려졌어야 했다고 봅니다. 누구도 터뜨리지 않고 침묵하다 보니 1년 넘게 지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실 문화연대에서도 문체부 직원들이 제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니 담쌓고 있었거든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재열 현 정부에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느꼈는데 검열이 만연하고 창궐한 뒤에야 겨우 나왔잖아요. 어쨌든 이번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해요. 검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자들에게 심리적인 회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들은 시대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제대로 복원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면 현실에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동연 부역자 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정영두 씨가 영국에서 가서 10일간 시위를 했는데요. 예술가들은 설 자리를 잃는데 쫓아낸 사람은 여전히 좋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1년간 너무 우울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망신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끼리 분노에 차서 성토만 했지 부역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박근혜 정부 산하단체 역대 기관장과 자문위원, 소위원회 명단을 받아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술품의 위작과 대작’인데요. 비단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 지난해 신경숙 작가의 표절로 시작해 미술의 천경자, 이우환, 조영남까지 문화예술계가 이처럼 비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석 일단 미술의 위작과 문학의 표절은 그 세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안의 전문가와 비평적 독자군이 어느 정도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법 소송으로 간다고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미술은 문학과는 다르게 투자가치가 있고 거액의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미술계 자체에서 투자가치로서의 미술과 진품, 예술 작품의 미술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감정의 전문성은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는지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재열 예술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표절과 위작의 역사인데 그동안 철학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조영남 사건은 이쪽 영역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영역으로 가버렸잖아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비판하던 사람들도 헛갈리게 됩니다. 진중권 교수는 개념미술의 관점을 들어 옹호했는데요. 미술 시장에서 조영남은 개념미술가가 아니라 구상화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념미술로 규정해버리고 모든 게 통용된다는 논리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자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영역과 층위가 있는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연 저는 조영남 대작 사건을 노동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대작을 해준 무명의 화가가 받은 대우를 보면서, 노동의 권



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로 접근한 것이고요. 적어도 개념미술을 주장하려면 거짓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영남이 자기 그림 팔면서 개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다 속인 거예요. 공론화와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하청받은 사람의 관계와 권리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처벌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재열 대책은 천경자와 이우환 사건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두 개의 신화만 깨면 거대한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어요. 두 사건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거든요. 미술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는 본인이 위작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고, 하나는 위작인데 본인이 내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예술 창작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들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계로 국한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명석 직업에서 예술창작가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10~20%의 진짜 창작능력을 가진 사람은 유지되겠지만 하청해서 쓸 수 있는 일들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

분야를 점령할 것은 확실한데요. 창작의 상단부를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연 인공지능을 예술 창작에 활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미디어 아트나 음악 테크놀로지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술가가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아트, 사이보그 아트 등 예술의 한 장르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술 자체를 대체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학교에서도 춤을 추는 로봇, 작곡하는 로봇 실험을 해보았는데 현재까지는 조악해서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른바 기술미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를 인공이 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재열 저는 두 가지 기회를 열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활용의 측면입니다. 활용하려고 마음먹으면 무한대잖아요. 다른 하나는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술이 무엇이고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예술가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질을 가지고 따져야 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대신해주는 비용을 예술가에게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인공지능이 해결해주지 못할 고민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찾는 답이 더 빛을 발할 것이고요. 기술에

서울시는 모든 브랜드를 시민에게 맡기고 있어요. 의도는 좋지만 그동안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과 교수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가 올해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오랫동안 물밑에 있던 불만이 표출되었고 문화 창작과 비평 영역에서도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움직임이 커졌죠.

이명석 문화평론가

따라잡히지 않는 인간 고유의 창조 영역을 더 갈망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다면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홍대 정문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품 훼손이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재열 일단 일베 표상을 설치한 것까지는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고 봐요. 설치 목적이 일베를 찬양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술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요. 그것을 훼손한 것도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설치한 사람이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잖아요. 설치하는 과정인 것이고 훼손해준 사람을 통해 예술이 완성된 거예요.

이명석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런데 ‘문체적 상징물을 표현의 자유만으로 용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어떤 영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연 그 자체로는 작품이고 설치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지요. 파괴하는 행위 자체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의도한 것인데요. 만약 의도가 불순하다면 옹호해야 하는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 답을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히 읽히는 것은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도가 문화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 사회가 성숙하지 않아서 다 일베와 매갈리아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최근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 브랜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이서울유(I·SEOUL·U)’라는 브랜

를 만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뉴욕의 ‘아이러브뉴욕(I♥NY)’, 암스테르담의 ‘아이엠스테르담(I amsterdam)’과 같은 성공적인 도시 브랜드를 가질 수는 없는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연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고요.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의 단면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대안을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고요. 표절 시비와 형편없는 디자인에 최순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 자체가 현재 문화 정책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서울유’의 경우, 지금 서울시는 모든 브랜드를 시민에게 맡기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디자인 작업을 독점해서도 안 되겠지만 거꾸로 시민들이 결정해서 전문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의도는 좋지만 그동안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간과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석 국가나 도시 브랜드는 어디에서나 시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소규모의 공연 단체, 문화 상품에 이들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고재열 상대적으로는 ‘아이서울유’가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서울을 커뮤니티성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무엇을 해보자는 것들이 생기고, 마을로서 서울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점에서 ‘아이서울유’가 욕을 먹으면서 컸다고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조는 심리적, 물질적 여유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주제는 9월 28일을 디데이(D-day)로 여길 만큼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려했던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혼란이 최소화하기도 했고요. 김영란법 이후의 문화예술계의 위기에 대해 논해주시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연 부정청탁금지라는 취지를 살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

술계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좋은 의미에서의 커뮤니티가 위축되니 결과적으로는 섬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김영란법이 생기면 유료 관객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기업들이 후원 금액만큼 받아간 공짜 티켓과 그로 인한 충성심 없는 관객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반기는 부분도 있는 데요. 공연 시장이 양성화할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후속 조치가 없어서 그나마 자리를 채워 주던 공짜 관객마저 줄었다고 하고요. 김영란법보다는 문화예술계가 어떤 꼼꼼한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재열 당사자로서 불편해진 부분이 없지 않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 시행 전후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그 많은 기사와 칼럼 중에 단 한 문장도 건질 게 없었다고 봐요. 5만 원 이상 공연의 현장 취재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공연이면 프레스 리허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편할 때, 보고 싶을 때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동연 저도 칼럼*을 썼는데 취재의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나갈 경우 본사가 티켓 값을 부담하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언론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기자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내세웠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해요. 특히 유력 일간지 기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좌석으로 프레스 티켓을 발급받기를 원하고 그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친인척들에게 프레스 티켓을 뿌리면서 권력을 과시해왔어요. 일종의 우월의식과 생색 내기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취재 권한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명석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식이나 접대가 많이 없어지면서 저녁 시간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문화 소비자로 돌려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계속 남이 주는 티켓으로 관람했는데, 직접 티켓을 사서 보는 행위가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섯 가지 주제 외에 '나만의 2016년 화두'로 언급할 일이 있으신가요.

고재열 최순실 사태에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광고와 디자인하신 분들이 모든 꼭짓점에 앉아서 예산과 정책을 주물렀다는 겁니다. 창조는 마지막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아닌

데, 박근혜 정부는 포장지만 고민했다는 것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문화융성을 하려면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고 시인이거나 철학자를 장관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씨를 뿌렸어야 하는데요. 그 장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장관,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도 없고 우리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 참담했어요.

이명석 페미니즘 이슈가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오랫동안 물 밑에 있던 불만이 사회적 계기를 통해 표출되었는데요. 문화창작과 비평 영역에서도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움직임이 커졌죠. 한국 사회에서 그간 노동자 운동이 정치 문화적 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페미니즘 운동이 이 시대의 정치 문화적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연 테이크아웃드로잉이 8월 31일자로 사형집행을 당하고 싸이의 건물로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의 운명을 우울하게 바라본 한 해였고요. 개인적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중요 사업 중 하나인 '플랫폼창동61'의 마스터플랜을 맡고 있는 이윤배만적인 위치에 있어서 1년 내내 괴로웠어요. 제가 '플랫폼창동61'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과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싸웠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이나 기획을 하는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가 또 있었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되던 검열 문제가 올 초에 폭발했으며,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실체가 공개되며 역사상 가장 많은 단체와 예술가들이 참여한 시국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단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계를 들쭉이게 만들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쾌거에 이어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알파고에 맞선 이세돌은 감탄을 넘쳐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화예술계 성추문 사태는 문화예술계에 많은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는 여러 문제에 관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이 주제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경향신문 '문화비평' 김영란법과 공짜티켓 (2016. 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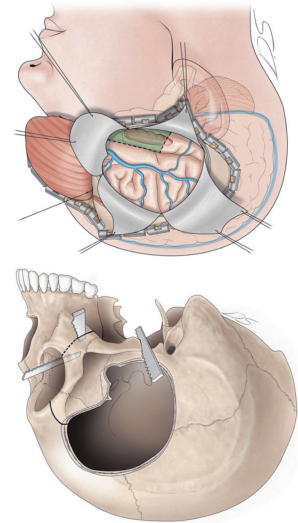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김창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장동수

어려운 의학 정보를 쉽고 정확한 그림으로

건강과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에서 의학 정보를 접할 일 또한 많아지면서 요즘 부쩍 회자되는 직업이 있다. 의학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병원의 복도부터 저명한 논문까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전망은 밝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Medical Illustration)’은 각종 의 과학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리는 모든 그림 으로, 나는 이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Medical Illustrator)다.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이 국내에 불과 10여 명밖에 안 되는 생소한 직업인데, 이 일과의 첫 인 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 공한 나는 당시 미술해부학 수업을 들으면서 꽤나 근육처럼 세밀한 부분을 그리는 게 유난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사 람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술 해부학 수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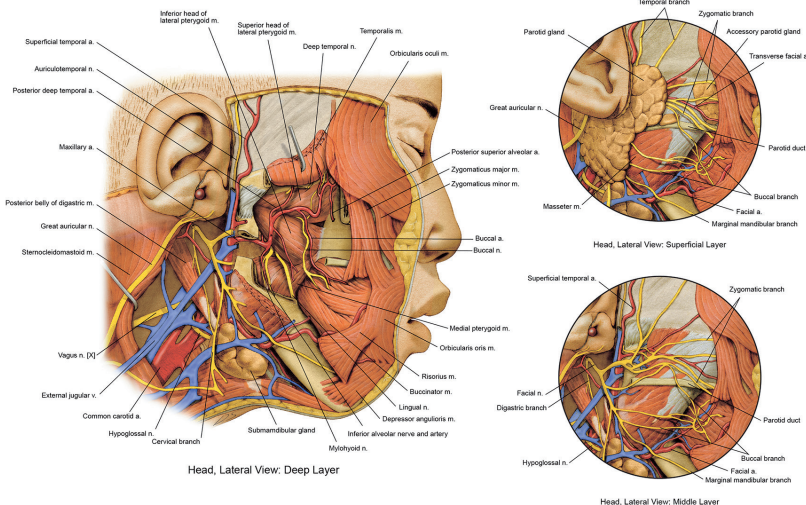
서 배운 근골격 그림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 일이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 부학교실에서 <사람해부학>이라는 책을 쓰는 데 필요한 미 술 전공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나는 해부학교 실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 인연을 커리어로 지속적 으로 이어와 현재는 의학 전문 일러스트 기업 MID(Medical Illustration&Design)를 운영하며 프리랜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 그래픽지원 총괄을 하고 있다.

그림 실력과 의학 정보만큼 ‘의사소통’ 중요

메디컬 일러스트는 의사나 연구자들이 쓰는 전문 서적이나 논문, 환자 교육용 자료, 강의 자료 등 활용 영역이 상당히 넓 다. 작업은 연구자(의사)의 의뢰로 시작되는데, 연구자와 충 분히 소통하며 그림의 용도와 콘셉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정한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림에 담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담을 수 있도록 구도(view)를 잡는 것 부터 세밀한 표현 하나하나까지 연구자와 의견을 주고받으 며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은 많 은 정보를 함축해 설계도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직 관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림만 잘 그린다고 또는 의학 정보만 잘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다.

‘의사소통’은 실제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Infratemporal region, Superficial to Deep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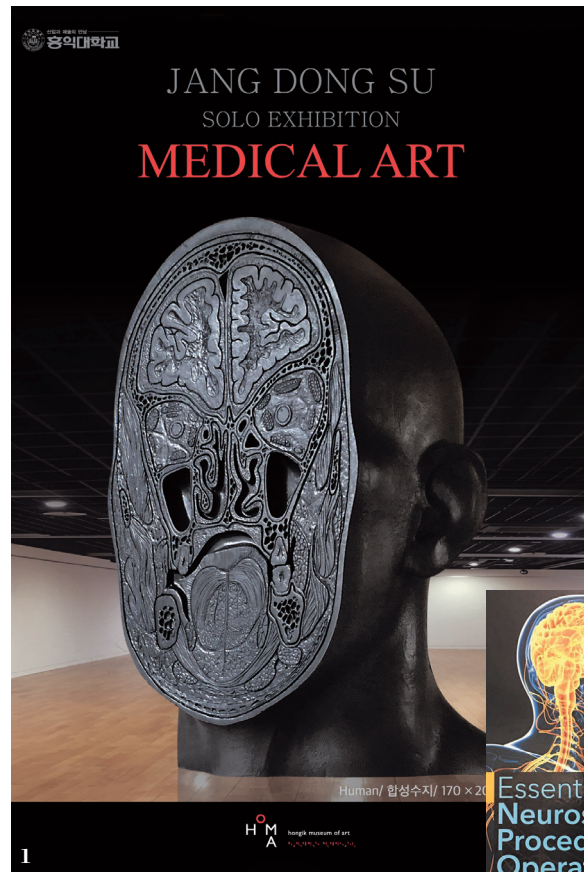
Artist: Dong-Su Jang
Title / Description: Infratemporal region, Superficial to Deep Layers
© 2016 Dong-Su Jang

하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림, 이해를 돕는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그림을 놓고 수십 번 이상 수정을 거치기도 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물론이다. 반면 연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내 일러스트가 들어간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때엔 정말 기쁘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은 간단한 그림 하나를 통해 논문을 읽는 이들에게 미리 '어느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묘미가 있다. 또한 설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도 그림으로 보여주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유명 의학 저널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볼 때 그림이 좋으면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논문에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차지하는 부분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논문에서 그림의 비중이 클 때엔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그린 그림을 통해 세계의 수많은 의학 전문가가 정보를 얻고 의학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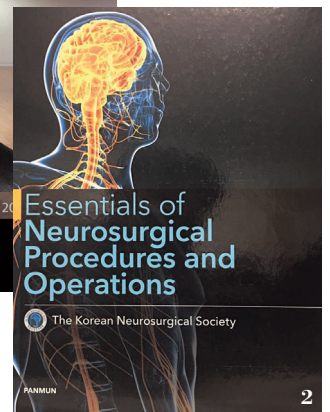
중요도와 필요성 높아져... 국내 처우는 개선 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인 그림을 그리려는 고민 속에서 작품의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컴퓨터로 주로 작업하다 보니 오히려 펜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 시도해봤는데, 외국 저널에서 반응이 좋았다. (일반적으로는 저널마다 요구하는 느낌과 기호가 조금씩 달라 그에 맞춰 그리는 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3D 기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뼈를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부학교실에 가서 직접 무릎뼈 등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3차원으로 표현해내면 2차원 그림과는 분명 차별점이 생긴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과 연구의 내용에 맞느냐'지만, 기법적으로 각자의 스타일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교육,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이나 의족·의수 등 인체 보조기구 제작, 의학 관련 e-book 콘텐츠 제작 등 메디컬 일러스트가 필요한 곳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의학 연구자나 논문 리뷰어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 이기에 이 분야의 전망은 밝다. 다만 한국은 아직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인지도나 작업의 중요성, 저작권에 대한 인



장동수 작가는 다수의 의학 전문 서적(사진 2)과 논문의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한편, 의학 연구를 접하며 얻은 감흥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메디컬 아트'를 주제로 개인전(사진 1)을 열었다.



식이 낮은 편이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분야 종사자를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동등한 '연구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처우 역시 전문 분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최근 국내의 한 대학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다. 일러스트의 중요성과 수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스템과 환경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 1 그림 실력이 기본
- 2 미술이나 생물학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함
- 3 그래픽 소프트웨어(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를 다룰 수 있어야 함
- 4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사진 장동수
홍익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연세대의대 해부학교실 조교로 일하며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과 인연을 맺은 후 15년 넘게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수백 편의 SCI·국내 논문에 일러스트가 등재됐고 다수 출판물의 일러스트를 담당했다. 현재 MID(Medical Illustration&Design) 대표, 연세대의대 연구부 그래픽파트 총괄을 맡고 있다.



나는 나를
백만분의 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다

- 이영광 시인의 시 <촛불> 중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예술가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검열의 민낯

문화예술계에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열' 의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블랙리스트'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국정농단'이 문화체육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는 무너졌다. 극심한 혼란 이후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제자리를 찾고 회복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 기조가 바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였다. 이러한 정책적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 문화 정책에 담겨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21세기에는 문화가 국력’이라며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도 ‘창조경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수사는 측근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허구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문화 발전과 예술가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연예술 시장은 2014년에는 성장률이 6.4%였지만, 2016년에는 2.7~4.0%로 나타나 2~3% 포인트 이상 줄었고, 예술가를 위한 순수예술 지원예산도 2014년에는 522억을 지출했으나, 2016년에는 274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만 늘어났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문화융성은커녕 비선융성에 문화파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창조경제는 블랙리스트를 양산하는 창조검열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문화융성의 시대착오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말할 때부터 나는 섬뜩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으레 문화정책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왔기에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문화융성이라는 말이 나오니 참 낯설게 느껴졌다. 1970년대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초등학교 시절의 데자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정신을 본받겠다고 ‘10월 유신’이라는, 박물관에나 있을직한 단어를 꺼내 들면서 긴급조치 시대를 열었던 것이 떠올랐다. 1970년대에 유신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이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융성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박물관 단어였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스템이 있기에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말을 꺼냈지만 그래도 기존의 문화정책의 기본 틀이 뒤바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문화 다양성과 지역문화의 제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선 실세이던 최순실의 힘을 배경으로 광고기획사 대표인 차은택 씨가 문화담당 청와대 수석으로 친인척을 추천하고 장관과 차관을 자기 사람으로 앉혔다. 대통령이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고 기금을 강요했으며, 최순실이 뒤이어 수금을 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문화 정책은 사라지고, 문화융성은 결국 비선 실세의 먹잇감 획득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우 리 가 모 두 블랙리스트 예 술 가 다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예술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2016년 10월 18일(화) 10:00~12:00, 평화문광장

오전 10시부터 평화문광장 곳곳에서 예술검열 사태에 항의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예술행동과 기자회견(11:00)이 이어집니다.

박근혜정부의 예술검열에 반대하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사태에 항의하는 예술행동으로 참여합니다.

문의 : 02-773-7707 (문화연대)

1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슈가 제기된 10월
열린 기자회견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창조경제의 콘텐츠 부족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함께 창조경제도 중요시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에 낸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유래됐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책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호킨스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창조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머물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라는 말은 차은택을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앉히고 그의 뜻대로 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쯤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이, 그리고 경제정책이 시스템으로 움직여도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까 말까인데, 비선 실세의 농간으로 문화정책이 좌우되었다고 하니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나왔을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연출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올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랐다.

3

11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에 캠핑촌을 마련하고 록페스티벌 〈하야하왁〉을 여는 등 문화난장을 벌이며 현 정부가 초래한 사태를 규탄했다.



리가 없다. 결국 창조경제는 예술가들의 블랙리스트와 검열만 창조하고 실질적으로 문화 발전도, 불황기의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초라한 결과만을 낳았다.

블랙리스트 예술가

문화 검열은 전근대적 국가와 나치와 같은 독재체제의 상징이다. 일찌기 진시황제의 분서갱유가 전형적인 문화 검열이며, 나치 시대의 반나치 문학에 대한 분서 행위가 독재국가의 문화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검열은 창조행위를 억압한다. 검열의 시대에 창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논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을 자행하는 형용모순의 상태에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검열의 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현시대를, 정치적으로 문화예술의 내용을 검열했던 시대 즉 1970년대로 회귀시켰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만 없었지, 검열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떠돌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 예술가는 탈락하게 되었다. 공개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는 9,473명으로 2015년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선언자 594명,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자 지지 예술인 6,517명, 2014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 예술인 1,608명이 포함돼 있다.

연극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연출의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극 지원 ‘창작실험’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 드러났을 때 폭발했다. 이는 박근혜 연출가가 2013년 연극 〈개구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 검열에 맞서서 연극계에서는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이하 권리장전)를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5개월 동안 상연했다. ‘권리장전’은

정치 검열에 맞서 예술가의 권리를 공연으로 주장한 것으로 21개 극단이 제작한 연극 22편에 관객 6,671명이 관람했다. 이들은 마지막 공연에 '내가 바로 블랙이다'라는 펼침막을 놓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블랙리스트다.

예술가의 광화문광장 캠프촌

예술 표현의 자유야말로 헌법적인 가치다.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본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총 288개 단체 7,449명의 문화예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술 검열, 블랙리스트, 문화행정 파괴의 실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예술가들의 캠프촌을 만들었다. 11월 12일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과정에서 가수과 방송인이 무대에 올라 집회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시위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구호와 함성이 있는가 하면 풍자와 해학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는 흥겨움이 있어야 한다.

11월 18일 현재, 아직까지 예술가들은 광화문광장에 캠프촌을 마련하고 추운 겨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록페스티벌의 타이틀은 '하야하락'이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마련된 예술가들의 캠프촌에서 목요일 밤 문화난장을 벌이고 '박근혜 퇴진? 그만 퇴근해!'를 주장했다. 추운 겨울 예술가들이 캠프를 하면서 사상 초유의 혼란을 초래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것이다. 이제까지 블랙리스트로 억압받고 지원금도 받지 못했던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했다. 많은 예술가는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스스로 훈장으로 여긴다.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개념이 모호했고, 콘텐츠도 부족했기에, 국정농단을 하는 자들을 위한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버렸다. 이것도 부족해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재벌을 협박하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강제 출연토록 했다.

이처럼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과 유착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토목회사와 이에 결탁한 정치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과 일맥상통



4 11월 4일 광화문에서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문화예술인들.
5 11월 9일에는 '블랙리스트의 시대,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다.

문화융성은 한식 세계화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단 설립으로 이어졌고, 편협한 애국주의와 시장주의에 편승해 그 취지는 퇴색했다. 왜곡된 국가정책이 불러온 저열한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문화예술계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문화기조를 세워서 예산 나눠주기식 이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측근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문화행정 인력을 블랙리스트 만드는 데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가 살아난다.

글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연구위원 원장, 전 KBS 원장.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문화연대

잇따른 성추문 사태로 진통 앓는 문화예술계

‘증언의 연대’에 무겁게 귀 기울이길

올해 하반기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는 안타깝게도 ‘성추문’이 될 것 같다. SNS에서 ‘#○○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시작된 피해자의 폭로는 문학, 미술, 영화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성추문이 만연해 있음을 수면으로 드러내며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오프라인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

까. 국정농단 파문과 맞물려 어지럽고 참담한 날들이다. 지난 5월만 해도 한강 작가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으로 흥성거렸던 문단은 요즘 한껏 위축된 분위기다.

익명의 ‘증언’이자 ‘절규’는 10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세상에 터져 나왔다. 박진성·배용제·백상웅·이준규·이이체 시인 등 성희롱·추행·폭행을 가한 문인들의 실명과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인기 소설가인 박범신 작가도 편집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작품 〈은교〉에 빗대 한 성희롱 발언이 공개되며 사과하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가해자들의 실명을 폭로한 글들은 SNS를 통해 다시 공유되고 지지를 얻으며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됐다. 이를 통해 문단뿐 아니라 미술·음악·영화 등 문화계 전반에서 권력관계에 기대 암암리에 자행됐던 성폭력의 진상이 드러났다. 일민미술관 큐레이터,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영화평론가 등이 추가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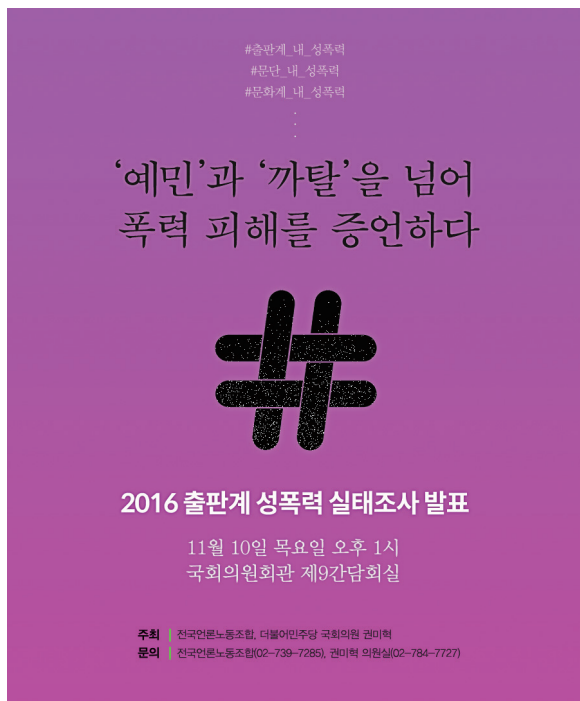
온라인의 고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

온라인의 연대에 힘입어 고발은 오프라인으로도 번졌다. 서울에대에서 강사로 활동한 황병승 시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대자보가 서울예대 안산 캠퍼스에 나붙은 것. 문인 성폭력 폭로자를 지지하는 오프라인 연대로 꾸러졌다. 배용제 시인이 가르쳤던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졸업생 106명으로 이뤄진 모임 ‘탈선’은 배 시인의 성폭행 사실을 밝힌 피해자를 지지하고 배 시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문제가 된 문인들의 책을 출판하거나 출판하려 했던 출판사로도 불뚝이 튀었다. 은행나무는 당초 10월 말 출간 예정이던 박범신 작가의 새 장편 〈유리〉 출간을 무기한 연기했다. 가해 시인 다수의 시집을 ‘문지시인선’으로 펴냈던 문학과지성사도 논란에 휘말렸다.

송승언 시인은 온라인 메모장 에버노트에 ‘문학과지성사에 고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출판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송 시인은 “가해 지목자 다수가 문지에서 시집을 낸 시인들이라는 점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단에서) 문지가 가진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한 문단 안팎의 이미지가 여러 문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며 인맥 출판의 통로가 되는 출판 경영 내규 재정비, 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학과지성사는 지난 10월 21일 사고를 통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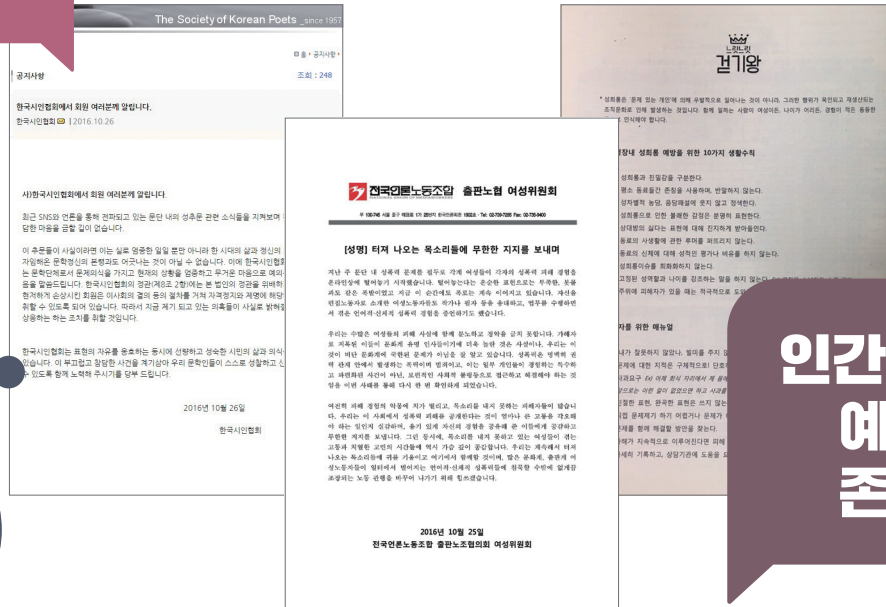
포털 검색어 화면에 ‘문단’이라는 단어를 쳐보곤 흠칫 놀랐다. ‘문단’의 자동 완성 키워드로 가장 먼저 뜨는 말이 ‘문단 내 성폭력’이었기 때문이다. 저열한 세계에서 인간을 구원해줄 문학을 빚어내는 문단이 언제부터 ‘성추문의 온상’으로 여겨지게 된 걸

#문화계_내_성폭력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을

#예술계_내_성폭력



감을 표명한 데 이어 11월 6일 다시 입장을 밝혔다. 문화과지성 사는 “그 누구도 문학적 권위를 수단으로 타인을 권력관계 속에 묶어매고 반인간적, 범죄적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문제가 드러난 시인들의 경우 출판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응 조치로는 향후 출판 계약 체결 중단, 기(既)출간 도서 절판, 계간 <문화과사회> 원고 청탁 중단 등이 포함됐다.

‘증언의 연대’ 목소리 무거운 마음으로 헤아려야

‘#○○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특정 주제어에 대한 글임을 알리는 표시)로 촉발된 ‘증언의 연대’는 문화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각성과 자성의 분위기를 불러왔다. 이번 사태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비하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남성의 시선과 언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고발이 두드러졌던 건 한번 ‘이름값’을 얻으면 끝 간 데 없는 권력을 누리는 문화예술계 내 극심한 권력 불균형, 문제가 생겨도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폐쇄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력’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저급한 관행도 불이익에 떠는 ‘을’들,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한 문인은 그랬다. “예술계 전체가 이런 저속하고 추잡한 논쟁에 휘말리는 게 참담하다. 하지만 이번 일로 문화예술인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1세기 문학> 가을호에 문단 내 여성 혐오 행태를 폭로해 시선을 모은 김현 시인은 “여성 폭력 문제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것이고 오늘의 문제라 터진 게 아니라 터질 때가 되니 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인은 “해시태그를 통한 ‘증언의 연대’는 그간 참고 고민하고 활동한 여성들이 피해를 고발하고 나선 주체적인 인식의 결과”라며 “증언-사과-처벌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는 게 증언의 가장 큰 목적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문화계로선 뼈아픈 ‘진통’일 테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잠시 머리를 숙이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익명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지지의 목소리들을 깊이 헤아리고 무게게 들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걷어낼 ‘희망’이자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시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에서는 논란이 있던 시인들에게 제명 등 조치기 있을 것을 예고했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판노총 여성위는 폭력 피해 고발 여성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영화 <견기왕>의 촬영에 앞서 제작진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글
정서린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서울시 민간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문화재단 메세나 프로젝트

기부로 ‘있다’, 예술이 비로소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민간 협력 우수사례집 <서울, 아름다운 동행>을 발행했다. 민간단체·기업·개인이 시정사업에 협력해 소기의 성과를 낸 사례들을 소개한 이 책에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제휴 프로젝트도 비중 있게 소개됐다.

기업과 예술단체·창작자를 매개하는 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문화 매개자

“대리님, 기부금 입금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일이 성사됐다. 재단과 협력한 기업에서 기부금을 입금한 것이다. 이 금액은 전부 아티스트의 창작지원금으로 활용된다. 기업에 따라서는 돈이 아니라 카메라, 페인트 등과 같은 현물을 기부하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예술가들에게 기증하기도 한다.

메세나(mecenat).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독려하는 말이다. 필자가 담당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업의 기부를 이끌어 내 재단 또는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일이다. 우리 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제휴팀을 신설해 ‘Make difference with the Arts’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유도하며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다. 2015년부터는 민간

서울 아름다운
동행



1
2016 서울시 민간협력
우수사례집 <서울,
아름다운 동행>.

1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화제휴팀'을 '제휴협력실'로 격상해 메세나에 힘을 주고 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니?”라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아니고 재무, 인사, 총무와 같은 일도 아니다. 예술 행정 또는 예술경영이라는 직무로 설명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매개자'라는 말을 즐겨 쓴다. 공적 영역과 예술 사이를 이어 직접적인 여러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기업과 재단을 잇는다. 매개자들을 이어준다는 말이 맞을까.

기업과의 문화제휴, 그 의미 있는 성과들

재단이 적극적으로 문화제휴 사업을 추진한 지 햇수로 5년이 되어가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종 매체에 소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시 민관 협

력 우수사례집>에 제휴 사업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조아제약과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인 '프로젝트A', 올림푸스 한국과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엉뚱한 사진관', 한성자동차와 신당창작아케이드의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in 구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서울예술치유허브가 협력한 '초록나무 프로그램'이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감사하게도 좋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기업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기획해 재단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오기도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했던가. 하나의 제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미팅 약속을 잡고 인연을 잇기 위해 애쓴다.

비단 서울시 사례집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젝트는 언론과 교육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엉뚱한 사진관'은 자기소개서와 증명사진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인데, '청년실업'이라는 시의성 있는 이슈를 예술적 감각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은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in 구로'의 경우에는 공공예술의 모범사례로 꼽혀 초중등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며, 광고교과서로 불리는 <광고연감>에 엉뚱한 사진관과 함께 기업의 문화마케팅 우수사례로 수록되는 쾌거를 보였다.

예술이 '잇기' 위해서는 예술을 '이어야'

무언가를 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기업의 목적과 재단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기에 예술단체의 상황까지 겹치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내 하나로 이어 예술을 '잇게' 만드는 것이 제휴협력사업의 묘미다.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후원하기로 약정된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각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부금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면 처음에 그린 밑그림에 채색하고 다듬으면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재단이 예술후원을 위해 내건 슬로건이 'Life is Art'인데, 나만의 방식으로 본인의 삶을 예술적으로 가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있다'와 '잇다'.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예술이 있기 위해선 예술을 이어야 한다. 예술가의 생각이 이어져야 하고 창작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감상하고 수용하는 층과 이어져야 한다. 나는 이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파급력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잇는다. 수많은 '잇기'를 통해 예술이 '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위 두 단어와 같은 발음의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 '잇다'가 그것이다. 제휴협력 업무의 가장 큰 미덕은 후원 기업과 직접 사업을 수행한 사업부서와 예술가만 남기고 매개자는 조용히 잊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올림푸스한국(주)과 함께 진행한 <엉뚱한 사진관 프로젝트>(사진 제공: 관계대명사).

3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와 진행한 <도시게릴라프로젝트 in 구로>.



글 이승주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 대리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곧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의 생생함과 그 너머에 실재하는 고층 빌딩의 비현실적인 풍경을 한데 담아낸 정지현 작가의 <재건축현장 1>과, 일상의 자질구레한 사물·풍경을 대칭형의 프레임 안에 무질서하게 배치해 초현실적으로 재구성한 국동완 작가의 <Decalcomanie life>를 소개한다.



정지현

재건축현장1

원피그먼트프린트

140×180cm

2015

500만 원



Decalcomanie life

종이에 색연필
45×81cm
2014
800만 원

- 나는 시인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인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바람난 미술’×다음(Daum) 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서울문화재단-성동문화재단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예술로 하나 되는 성수동의 가능성을 엿보다

서울문화재단과 성동문화재단이 협력해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난 11월 4~6일 개최된 성과공유 행사 '성수예술마을_성수 공방전(展)'을
통해 공식 종료됐다. 이후 진행될 사업평가와 후속 사업 논의에 앞서
올해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이번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의와 가능성, 개선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왜 다시 성수동인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기관
과 협력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킹, 지역 예술 생태계의 구
축과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예술적 지역 재생·활성화를 추구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성은 기존 공공주도형 지역 활성화 사
업의 시설 조성, 작품 설치 등 하드웨어적 관점으로 접근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 개념에 입각한 소프
트웨어적 관점의 접근을 꾀했다는 점이다. <성수예술마을만들
기>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성북구 정릉 대상 <정릉에

술마을만들기>(성북문화재단 협력)에 이은 두 번째 예술마을 조
성 사례다.

1960년대 정부 주도로 가족·섬유·인쇄 등의 제조업 지구
로 발전해온 성수동은 1990년대 제조업의 쇠퇴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2000년대 이후 하나둘 자리를 비운 공장 부지에 홍대 앞
의 치솟는 임대료를 피해 온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실
(공방) 겸 상업 공간(카페 등)을 오픈하면서 전통산업과 젊은 문
화예술적 움직임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색을 갖게 되었다. 이
러한 특색은 최근 수년 사이 젊은 문화 향유·소비층은 물론 부동
산업계와 기업 자본, 정부의 도시정책 등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
했고, 성수동은 소위 '핫 플레이스'로 변해갔다.

이미 다양한 문화·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성수동에
서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엔 그런
'핫 플레이스 현상'에 가려진 성수동의 전통산업, 예술공방, 젊은
예술가·활동가 등 지역 예술자원을 통해 성수동의 예술 브랜
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16 성
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남천우 대표(페이퍼
크라उन)는 말한다.

"성수동에 공방이나 공간은 많지만, 이들이 뭉쳐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은 전무했어요. 그런 파편화된 활동 속에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이내 핫 플레이스라는 미명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피
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그러다 성동문화재단 주
도로 지역 내 단체들과 공간,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성수동만의 진정한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를 만



들어보자는 목소리가 생겨났고, 여기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 실행 근거가 된 거죠."

성수예술마을, 기획에서 실행까지

그의 언급대로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성수동 일대에 산재한 가죽·섬유·인쇄 등 지역 전통산업 자원과 목공·도예 등 지역 공방, 그리고 갤러리, 카페 등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지역 내 전통산업·공방 인프라 활용 워크숍(가죽·수제화·'반짝반짝 가죽공장', 섬유·'알록달록 섬유공장', 인쇄·'꼭꼭찍은 인쇄공장', 목공·'똑딱똑딱 나무공장', 도예·'즐거운 도예공방' 등)을 비롯해 3D프린팅 토이제작 워크숍, 어린이·청소년 워크숍 등 지역 예술가·장인이 진행하는 13건의 주민참여형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메이드 in 성수' 프로젝트는 전체 150명의 주민 참여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열성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전시 기회가 부족한 신진 작가들에게 성수동의 다양한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매칭해주는 '어쩌다 마주친 전시'도 10월 중 성수동 전역의 17개 카페, 식당, 매장 등에서 작가 24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메이드 in 성수'와 '어쩌다 마주친 전시'를 통해 만들어진 100여 점의 작업물로 구성된 성과 공유 행사 '성수예술마을 성수 공방전(展)'에도 500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했다.

성동문화재단 관계자는 성과 공유 행사에서 공개된 워크숍

참여시민 작업물에 대해 "일반인들이 만든 작업물이지만 판매 상품으로도 손색없다"라며 "올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예술 주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자평했다.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도 이번 사업이 "공공 지원을 통해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과 주민을 연결하고 지역과 장소를 새롭게 발견한 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수예술마을을 위한 이후의 과제들

올해 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도 있다. 특히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적지 않다. 사업 초기에 개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단체와 공간들로 급하게 구성된 사업추진단은 추진 방향과 장기 목표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도 전에 적잖은 진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계획된 내용을 변경한 주체들도 생겨났다. 사전 과정에서 겪은 이런 진통은 사업의 정교함과 참여 주체 간 연대를 약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올해 추진된 각각의 워크숍과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개별 성과와는 별개로 지역을 아우르며 하나로 '모여 있는' 느낌이라기보다 점조직 형태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다른 평가위원은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지속시키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가 장기적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한 더 큰 형태의 비전과 협업 방향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다른 평가위원도 "올해 사업을 통해 구성된 공동 창작 구조를 생산-유통-소비 구조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 사업만의 고유 아이টে이션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역의 소셜벤처와 연계한 상품화 전략, 지역 자원에 대한 외부의 수요와 내부의 욕망 파악 등 고도화된 전략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성수예술마을만들기> 1차년도 사업 성과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성과 자체보다 향후 추진될 사업을 위한 '과정 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 설계'에는 공공과 지역 주체가 긴밀하게 협의해 명확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장인과 예술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후 진행될 사업에서 이런 시사점을 잘 반영해 성수동 지역의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예술 자원의 생태계 구축과 자생력 확보라는 사업 본연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목공방 '우드유라이크'에서 진행된 '메이드 in 성수-똑딱똑딱 나무공장' 워크숍.
- 2 도예공방 '브렌드'에서 진행된 '메이드 in 성수-즐거운 도예공방' 워크숍.
- 3 수제화공방 'JS슈즈디자인 연구소'에서 진행된 '메이드 in 성수-반짝반짝 가죽공장' 워크숍.



3

글
선결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팀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음악 전문 서점 '라이너 노트'

책으로 만나는 음악, 함께 듣는 공간

최근 2~3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작은 서점이 여럿 생겨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점들이 문을 여는 것이 유행처럼 보이기도 한다. 유행하는 것이 서점이라면, '책'을 공통분모로 하는 공간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개성과 방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봄에는 음악 서점이 생겼다. 5월에 연남동의 호젓한 골목에 간판을 내건 곳의 이름은 '라이너 노트'다.



음악을 책으로 알릴 수 있다면

'라이너 노트(liner note)'는 음악이나 뮤지션에 대한 해설을 뜻하는 말로 보통 레코드 재킷이나 속지에 적혀 있는 글을 일컫는다. '음악에 대해 글로 풀어낸 가이드'라는 뜻에서 음악 서점과도 제법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곳은 기획사 '페이지터너'.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공연 기획·마케팅을 하는 곳으로 피아니스트 임인건, 베이스리스트 이원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성현 등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봄에 페이지터너가 연남동의 한 주택에 동자를 틀면서 건물 한 칸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해 서점을 열었다.

"원래는 건물의 주차장 자리였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 창고로 쓰기에는 아깝더라고요.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이곳을 '마이크로 시어터'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앨범이 나오면 팝업스토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대표님과 저 둘 다 책을 좋아하니, 음악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공연이나 음반 외에 글,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점을 열게 됐어요."

페이지터너의 박미리새 이사는 패션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음악 신(scene)으로 넘어왔다. 원래 음악을 두루 좋아했기에 음악 제작과 유통을 배워가면서 좋은 음악에 좋은 옷을 입히는 지금의 일은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고. 이에 더해 "책을 읽고 내용에 깊이 들어가 음악을 듣다 보면 귀가 더 열리는 느낌"이라며 글이 음악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라이너 노트의 공간은 넓지 않다. 한쪽 벽면과 서점 중앙의 테이블은 책의 자리, 공간 안쪽은 피아노 등 악기의 자리다. 구분지을 것 없이 그 자체로 '음악의 자리'인 서점은 일주일에 한 번 공연장이 된다.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은 15명, 많아야 18명 정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거의 없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들을 기회는 흔치 않다. 아티스트의 호흡과 표정을 느낄 수 있는 이 공연의 이름은 '손 내밀면 닿을 듯한'이다.

음악을 만지고 책을 듣는 공간

'음악 서점'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있겠지만 음악 책은 그 종류와 양이 무척 방대하다. 음악 장르의 다양성×책 종류의 다양성을 헤아리거나 수많은 아티스트의 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조금 짐작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이너 노트는 작은 규모 안에서 음악의 즐거움을 접할 수 있는 책을 장르 구분 없이 가능하면 골고루 소개하려고 한다. 아티스트의 전기와 음악 장르의 역사를 다룬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이론서



와 에세이의 중간 정도에 있는 인문서도 있다. 몇몇 책에는 서점의 운영진이 직접 추천 글을 써 만든 띠지가 예쁘게 둘러 있다.

“손님이 오시면 음악을 좋아하는 분인지 여쭙보고 평전이나 에세이 종류를 권해드리곤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 잘 나가는 편이죠. <의미가 없다면 스윙은 없다> 같은 책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고루 다루면서 어렵지 않게 잘 읽히는 책이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띠지를 입힌 책은 거의 다나가는 것 같아요(웃음).”

사실 서점으로 문을 열었지만 본디 역할이 무엇이든 공간을 하나 마련한다는 것은 제법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한적한 골목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아는 뮤지션들은 이곳에 들러 연습하다 가는 등 이 공간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한 만남이 전보다 더 자주 이루어진다고 박미리새 이사는 전했다.

책 저자의 강연도 종종 열린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재즈 100년사>를 낸 저자 박성건 평론가의 강연이 진행됐는데, 강연 중간 중간에 저자가 직접 골라온 재즈 앨범들을 함께 들을 때엔 공연과는 다른 묘한 감동이 있었다고. 관객이 함께 LP를 직접 만져보고 음반과 음악의 질감을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니다. 요즘은 많은 이가 스마트폰 등 혼자 들을 수 있는

작은 매체를 통해 음악을 듣는다. 특정 ‘음반’을 ‘함께’ 듣는 일은 생각보다 귀한 일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데, 책이 중심이나 주변이 되는 공간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일까. 어쩌면 그 공간에서 책이 읽히거나 팔리는 것 외에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문은 아닐까. 라이너 노트 역시 그곳에서 음악과 책에 관한 크고 작은 일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기에 운영진도 서점을 아끼는 이의 행복도 조금 더 충만해질 수 있으리라 짐작해본다. ‘이 공간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박미리새 이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서점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공간을 개방하는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요. 책을 좋아해서 작은 모임을 여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 라이너 노트의 공간을 빌려드리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한국 1세대 재즈 뮤지션인 박성연 선생님과 ‘아누스’에 대한 전시예요. 아누스는 선생님께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한 재즈클럽인데, 거의 매달 열린 정기연주회 자료를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아누스는 한국 재즈의 역사 자체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이곳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미리새

라이너 노트의 내부. 책방은 종종 공연장 등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글
이아림

사진 제공
라이너 노트
www.linernote.co.kr



연극 <백석우화>와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의 시와 삶이 무대로

평안도 방언을 맛깔나게 기워 아름다운 시로 탄생시킨 시인 백석.

그의 삶과 사랑과 시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무대에 오른다.

이운택 연출의 연극 <백석우화-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오세혁 연출의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눈이 뚝뚝 쌓이는 밤”이 머지않은 12월은 백석을 만나기에 좋은 때다.

1912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 오산고등보통학교 졸업, 도쿄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문학 전공. 1930년 조선일보 신년현상문예에 단편소설 <그 모와 아들> 당선, 1935년 시 <정주성>을 같은 신문에 발표해 시인으로 등단. 광복 후 월북, 1963년 무렵 협동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자에 의해 사망연도가 1995년으로 수정. 본명 백기행(白藺行).

시인 백석의 생애는 분단 시대 우리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평안도 토속 방언을 짙게 채워 넣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가늠하기 힘든 북방 언어들”로 쓰인 시는 “한국인의 얼과 넋을 황홀할 정도로 빼어나게 담아낸다.”(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백석의 시와 삶이 무대에서 되살아난다. 12월 18일까지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공연하는 연극 <백석우화-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내년 1월 22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다. 두 작품 모두 굴곡진

현대사에서 맑고 서정적인 시어를 남긴 백석을 담담하게 그린다.

백석의 생애에 방점 둔 ‘백석우화’

<백석우화-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11. 25~12. 18, 30스튜디오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백석우화-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은 백석의 시와 에세이, 편지를 판소리, 정가, 발라드로 노래하거나 읊으며 시인의 삶을 재현한다. 시 <여우난 굿죽>에 소리꾼 이자람이 가락을 붙인 판소리로 시작한 공연에서, 백석·임화·박용철·오장환·김억·노천명 등 당대 문인으로 변신한 배우들이 작품 속 명문장들을 노래와 몸짓으로 전한다.

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작품은 단연 모던 보이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다. 이들이 작품 속 나타샤의 정체를 찾으면서 백석의 연애사도 소개된다. 첫눈에 반해 동거했던 기생 자야(김영한), 친구 신현중의 아내가 된 박경련, 소설가 최정희와의 사연이 펼쳐진다.

월북 후 만난 아내 피아니스트 문경옥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무대에서 쇼팽의 <혁명>을 연주하자 백석은 절망에 빠진다. 버림받은 백석은 쓸쓸히 시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을 노래하지만, 러시아 작가 솔로호프의 민중소설 <고요한 돈강>을 번역하기 위해 남한행을 사양한 채 고향인 평안도 정주에 남기로 한다.

시간 순으로 백석의 삶을 재현하는 작품은 얼핏 신파적으로 보이지만 작품 낭독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이며 관객의 감정을 흔든다. “동시에도 사상을 담아야 한다”는 북한 정권에서 백석



의 작품은 사상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고, 삼수갑산 집단농장에 유폐된 백석은 당의 지시로 남한에 보내는 ‘회유 편지’까지 쓴다. 끝내 광대처럼 허연 분장을 한 백석이 라디오 부스에서 절규하듯 회유 편지를 읽는 대목은 처연하다. 작품의 맨 마지막, 스스로 시를 쓴 종이를 태우며 “시는 매일 썼지만 세상에 내놓을 것들이 없어 다 하늘로 올려보냈다”는 마지막 대사는 긴 여운을 남긴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작·연출을 맡았다. 기본기 탄탄한 배우들의 합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백석 역을 맡은 오동식 배우는 이 작품으로 지난해 동아연극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백석 작품 속 ‘나타샤’를 찾아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11. 5~2017. 1. 22, 드림아트센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마가리에 살자(후략)’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백석의 동명의 시 속 ‘나타샤’에 관한 이야기다. 〈백석우화〉가 백석의 생애 전체를 그린다면 뮤지컬은 백석과 기생 자야(김영한)와의 사랑 이야기에 방점을 둔다. 〈백석우화〉속 감초처럼 등장한 자야의 시선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간다.

두 사람의 사연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6년 김영한

이 국내 3대 요정(料亭)으로 불린 시가 1000억 원대의 대원각(현재는 길상사)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하면서다. 재산이 아깝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한은 “그 사람(백석)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답해 더 화제를 모았다. 자야는 백석이 김영한에게 불인 애칭이다.

작품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담한 목소리와 음악으로 이어간다. 백발 노인이 된 자야 앞에 옛사랑 백석이 옛 모습 그대로, 말쑥한 정장 차림의 모던보이로 나타나서는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지만, 백석의 부모는 기생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한다. 부모를 피해 백석은 만주로 떠나자야는 경성에 남게 되고, 잠깐의 이별이라 생각했던 것이 전쟁과 분단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만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 작품에는 백석과 자야, 그리고 둘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사내’가 등장한다. 사내는 등장인물, 백석의 시, 해설자로 변신하며 극을 이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우난 굶죽〉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등 백석의 서정시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애절하고 서정적인 가락이 돼 흐른다.

신예 작가 박해림이 대본을 쓰고, 뮤지컬 〈무한동력〉의 음악감독 채한율이 곡을 붙였다. 대학로 재주꾼 오세혁이 연출을 맡는다. 강필석·오종혁·이상이가 백석 역, 정인지와 최연우가 자야역을 번갈아 맡는다.

1 연극 〈백석우화〉 중 한 장면. 백석의 생애에는 한국의 근대화와 분단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다.

2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한 장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흰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여백 많은 무대로 나타냈다.

글
이윤택
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연희단거리패,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전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과 <혜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오늘 더 새롭게 빛나는 전통미술

전통미술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새 빛깔을 얻는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알면서 새것도 안다)의 태도가 중요하다.

조선시대 서화와 옛 공예품을 다시 들여다보며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하는

온고지신의 두 전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리고 있다.



DDP의 전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에서 선보이는 장승업의 작품 <약아홍粧>(若耶紅粧, 사진 1), <서안괘어>(書案掛魚, 사진 2), <고동추실>(古銅秋實, 사진 3). 기명절지화는 행복에 대한 소망이 담긴 서화 양식이다.

조선의 대가들과 백남준이 나란히 전하는 낙천주의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11. 9~2017. 2. 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간송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가 협업해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에서 하고 있는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를 먼저 보자.

간송문화재단이 보유한 간송 전형필(1906~1962) 컬렉션 중 ‘취옹(醉翁)’으로 불린 연담 김명국, 남종화의 대가 현재 심사정, ‘조선의 고흐’ 호생관 최북, 구한말 스타 화가 오원 장승업 등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활동한 화가 4명의 작품 50여 점이 나왔다.

수백 년 전 대가들과 20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묶는 이번 전시는 문학에서 쓰이는 대비와 대구(對句)의 방법을 끌어들이 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테면 소형TV 모니터를 상들리에처럼 늘어뜨린 백남준의 설치작품 <비디오 상들리에 1번>과 장승업의 ‘기명절지화(器皿折枝畵)’를 함께 배치하는 식이다. 상들리에는 서양에서 부의 상징이다. 마찬가지로 기명절지화는 연꽃(군자), 밤(자손번창), 감(성공), 괴석(장수) 등을 그려 넣은 것으로, 보통 사람의 ‘행복 소망’이 담긴 미술 장르다.

또 토끼가 TV 속의 달을 바라보는 백남준의 설치 작품 <달에 사는 토끼>와 보름달이 걸린 오동나무 아래서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그림인 장승업의 <오동폐월(梧桐映月)>이 한 공간에 전시됐다. 동양의 설화에서 토끼는 달에 사는 꿈의 존재다. 그 토끼가 백남준의 작품에선 달 밖으로 나왔으니 전통에 대한 유쾌한 패러디다.

심사정의 만년 득의작인 <축잔도권(蜀棧圖圈)>은 하늘을 오르기보다 더 힘들다는 중국 촉 지역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대형 두루마리 그림이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평화로운 강 하구에서 돛단배들이 유유히 흘러가는 장면이 있어 ‘고진감래(苦盡甘來)’의 낙관성을 풍긴다. 이 그림은 백남준의 <코끼리 마차>와 대구를 이루듯 보여준다. 과거의 통신 수단인 코끼리가 현재의 통신수단인 TV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으로, 정보통신의 진화에 대한 작가의 낙관이 깔려 있다.

장수에 대한 소망을 담은 김명국의 <수로예구(壽老曳龜·수노인이 거북을 끌다)>, 유불선의 통합을 상징하는 최북의 <호계삼소(虎溪三笑·호계의 세 사람 웃음소리)>, 유유자적한 삶을 형상화한 심사정의 <주유관폭(舟遊觀瀑·배 타고 폭포 구경하다)>

등 경쟁과 갈등의 사회를 살아가는 낙천성과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옛 화가들의 그림들이 엄선됐다. 이런 작품들이 수백 년 시공을 뛰어넘어 후배 작가인 백남준의 다양한 작품들과 대구를 이루듯 전시돼 해학과 재치, 위트와 유머를 만들어낸다.

간송문화재단 전성우 이사장은 “낙천주의야말로 우리 문화가 가져야 갖고 있는 핵심”이라면서 “정치적 혼돈과 개인적 좌절이 아무리 깊더라도 옛사람들은 낙천적 기질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혼돈과 좌절에 빠진 요즘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전시다. 내년 2월 5일까지.

조선시대 생활 속 아름다움의 재발견

〈해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 조선공예의 아름다움〉, 12. 15~2017. 2. 5, 가나아트센터

12월 중순부터는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가나아트센터에서 〈해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 조선시대 공예의 아름다움〉이 열린다. 탁월한 안목과 함께 수려한 글씨로 ‘한국의 미’를 설파했던 미술사학자 최순우(1916~1984)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시절인 1975년 ‘한국민예미술대전’을 열어 히트를 쳤다. 화각, 나전칠기, 함, 소반, 떡살 등 생활 속 공예품의 멋을 재발견하고 확인시킨 전시였다.

이번 기념전은 박영규 용인대 명예교수(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가 총괄 기획을 맡아 최순우가 재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한 전통 공예품의 미와 멋을 다시 환기하자며 기획됐다. 연적, 함, 필통, 소반 등 500여 점이 나와 18~20세기 초 조형미가 뛰어난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즉 순수하고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과 상류층 예술의 정교함과 격조를 보여주는 공예품을 망라한다. 연적만 해도 장독 만드는 오지로 제작한 오지 연적과 뚝배기 연적 등 서민이 쓰던 것부터 은상감한 금속 연적, 천도복숭아형 백자 연적 등 상류층을 위한 고급 제품까지 두루 걸쳐 있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물건이 나와 재료별, 기법별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필통의 경우 종이, 도자기, 돌, 화각, 대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것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대나무 소재라도 조각한 것, 불로 지져 무늬를 낸 것 등 제작 기법이 여러 가지다.

박 교수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 소장품이 대거 나와 신선한 전시”라면서 “일반 관람객뿐 아니라 인간문화재는 자극을 받고, 현대 디자이너는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



5



6

글
손영옥
국민일보 기자

가나아트센터 〈해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는 화각, 칠기, 소반 등 500여 점이나와 조선시대 공예의 조형미를 보여준다.
사진은 화각장생문합(華角長生紋函, 조선 19세기, 32.8×65.5×35.0cm, 사진 4),
곰돌약주전자(조선 19세기, 14.3×12.5×11.2cm, 사진 5),
종이로 만든 아자문(亞字紋)제등(조선 19세기, 24.0×14.8×14.8cm, 사진 6).

사진 제공
백남준아트센터·
간송문화재단,
가나아트센터

책 〈의리도 괴리도 업시〉와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겨울, 책이라는 흥(興)

겨울은, 아니 겨울이야말로 소설의 계절이다. 뜨끈뜨끈한 방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이 계절에 쟁여놨다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축복이 아닐까.

특히 귀와 손을 쫓아싸매지 않으면 외출 자체가 두려운 인생이라면.

읽고 나면 따뜻해지는 단편과 읽는 내내 낱낱거리게 되는 장편을 하나씩

추천한다. 성석제의 〈의리도 괴리도 업시〉(문학동네)와,

천명관의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예담)이다.

궁극의 책 한 권, 혹은 그를 찾기 위한 10만 권 〈의리도 괴리도 업시〉, 성석제 지음, 문학동네

작가 성석제가 ‘스토리텔링 애니멀’로 이름난 지 오래지만, 이번 단편집에서 특히 도드라진 작품은 〈몰두〉다. 그는 전작 〈재미나는 인생〉에서 몰두에 대한 특유의 정의로 세상의 ‘책 잉여’들에게 독보적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한 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어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라 부르려 한다.”

그런데 이번 몰두는 조금 다르다. 북풍에 꽃눈이 촌촌하게 매달린 가지를 떨고 있는 목련이 바라다보이는 이층 서재에서 시작한다. 이전의 ‘몰두’가 육체적·동물적 행위였다면, 이번 ‘몰두’는 차라리 관념적 몰입에 조금 더 가깝다.

1만 권 남짓한 책이 있던 외삼촌의 서재. 새로 집을 고치고 서재를 정리하는데, 열아홉 살 주인공은 외삼촌 조수를 자청한다. 사실은 대학 입학 용돈 정도를 욕심내며 벌인 일이다. 꼬박 일 주일이 지나 드디어 마지막 한 권이 남은 순간, 외삼촌이 묻는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억만 권, 옛날에는 십만을 억만이라고 했다. 그 정도는 될 거다.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중 십분의 일 정도만 가리고 뽑아 모은 것은 바로 지금 네게 물어본 그런 궁극의 책을 찾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규명하게 해 주는 책의 결정판, 즉 단 한 권의 책을 ‘이피터미(Epitome)’라고 하지. 자 이 방에 있는 책은 모두 네 손과 내 손을 거쳤다. 너는 이 책들 중에서 진정한 이피터미가 어떤 책인지 알겠느냐?”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던진다면 어떨까. 당신 인생 단 한 권의 책을 꼽을 수 있을까.

이것이 허당 사내들의 카니발이다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천명관 지음, 예담

이쯤해서 두 번째 ‘스토리텔링 애니멀’로 고개를 돌려 보자.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의 천명관. 겁이 없는 걸까, 판단력이 부족한 걸까.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라고 포호하는 ‘만용(蠻勇)’이라니.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남아일인 중천금’ 계열의 의리와 호탕함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허술하고 못난 사내들이 허당을 잇따라 짚는다. 성석제의 성스러운 ‘이



피터미'와 달리, 이 장편의 캐릭터들은 번지르르한 허풍 뒤에 숨은, 어리석고 추접스러운 뒷골목 사내들만 박스 단위로 등장한다.

흙구덩이에 파묻힌 뒤 그 흙을 파먹으며 사할 만에 살아나 왔다는 전설의 조폭이지만 현실에서는 애송이한테도 피떡 되도록 두들겨 맞는 인천 연안파 양 사장, '굵은 바늘로만 오백 바늘' 별명을 지닌 무적의 행동대장이지만, 실제로는 코가 예쁘다는 이유로 동성(同性)의 감방 동기에게 끌리는 형근, 예로 영화감독으로 변신해 '연기 지도' 재미에 빠져 사는 사채업자 박 감독.

이 너절한 남자들을 유혹하는 서사의 핵심 엔진은 35억 원 짜리 종마(種馬)와 20억 원짜리 밀수 다이아몬드다. 작가 특유의 '촉'이 있었던 걸까. 최순실 딸의 금메달 경주마도 겨우 10억 원 이라는데, 천명관의 종마는 그 세 배를 훌쩍 넘는다. 어쨌거나. 경마 조작 임무를 띠고 망치로 말 무릎 때리러 갔던 '비정규직 조직원'(바야흐로 건달도 청년실업 시대!) 울트라가 '형님'에게 잘 보이려고 트럭에 아예 종마를 싣고 온 절도사건, 그리고 송도에서 열리는 주얼리 박람회 출품된 콩고 다이아몬드를 바꿔치기하려는 사기 사건이 얹히면서, 말 그대로 비루한 것들의 카니발이 펼쳐진다. 위선이라고는 터럭 하나도 발견하기 힘든 이 생고기의 세계를 통해, 어쩌면 우리는 금기를 위반하며 카타르시스를 만끽

하는 주인공들의 쾌락을 대리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책이라는 흥, 결과에서 얻을까 과정에서 얻을까

〈몰두〉와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를 관통할지 모르는 옛이야기가 하나 있다. 서예의 거성이라 불리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왕희지. 그 왕희지의 다섯째 아들 이름은, 후대들이 헛갈리게도 왕희지였다. 성인이 된 왕희지가 어느날 밤 휘영청 달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시를 읊다가 멀리 호수 건너에 사는 친구가 보고 싶어졌다. 하인을 불러 배를 내었고, 어둠과 추위, 바람을 뚫고 친구 집 문전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자고 했단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왕희지는 "내가 친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의 흥이 일어 갔다가 그의 집 앞에서 흥이 다하였으니, 굳이 친구를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마음. 밤새 배를 타고 호수 건너 찾아갔던 몇 시간 동안의 흥(興). 친구가 집에 있건 없건, 친구가 자신을 반기건 그렇지 않건, 그 밤의 흥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즐거움이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과인가 과정인가. 단 한 권의 책의 제목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책을 알기 위해 읽어야 했던 억만 권의 책이 중요한가. 날은 춥고, 책 읽기는 즐거울 따름이다.

글
어수용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사진 제공
문학동네, 예담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재즈 작곡가로서 국내에
재즈 오케스트라 음악을 알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컴포

지션(jazz composition)이라는 전공을 3년 정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스탠더드 재즈부터 모던 재즈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쓰고 편곡해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흔하지 않은 재즈 오케스트라 음악을 한국 정서에 맞게 재편곡(re-arranging)해 재즈에 접근하기 쉽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인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내용을 읽어본 결과, 지금 제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교육을 통해 또 공연을 통해 함께 문화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교육 기관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제가 지원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관과 재단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예술적 상담소

한국에서 재즈를 한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서울]에 격월로 ‘신지수의 음악 정원’ 칼럼을 쓰고 있는 작곡가 신지수입니다. 저는 클래식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그 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변에 알고 있는 재즈 뮤지션들의 조언을 듣고 몇 마디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재즈라는 분야는 서양음악의 두 개의 큰 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클래식 음악이고요. 아니면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나누고 그중에서 대중음악을 재즈와 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실 분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니 지극히 일반화된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보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국악 관련 분야나 상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음악, 즉 클래식 음악을 일부 지원하는 반면 재즈는 엄밀히 말하면 상업음악이라고 보고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즈가 본래 클럽에서 연주되던, 상업성을 띤 음악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그다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 활동하는 뮤지션들도 대부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 레슨을 하거나 연주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 음악계에서 보면 재즈는 굉장히 마이너리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작곡으로 새길을 개척하거나 퓨전으로 다각화하거나

재즈 작곡(Jazz Composition)을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재



<http://bit.ly/ltAX44>

즈는 다른 서양음악처럼 작곡과 연주의 분업이 이루어진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주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도 즉흥연주의 경지가 높아지다가 결국 작곡과 다름없는 길로 가는 것일 테고요. 작곡이나 편곡 작업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 그 뒤에서 연주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클래식 작곡가와 그 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클래식 작곡가의 위상이 애초에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연주자의 유명세에 비해선 작곡계에선 이렇다 할 스타가 나오기 힘든 환경이고요. 그러니 재즈 작곡으로 특화된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신다면 거의 스스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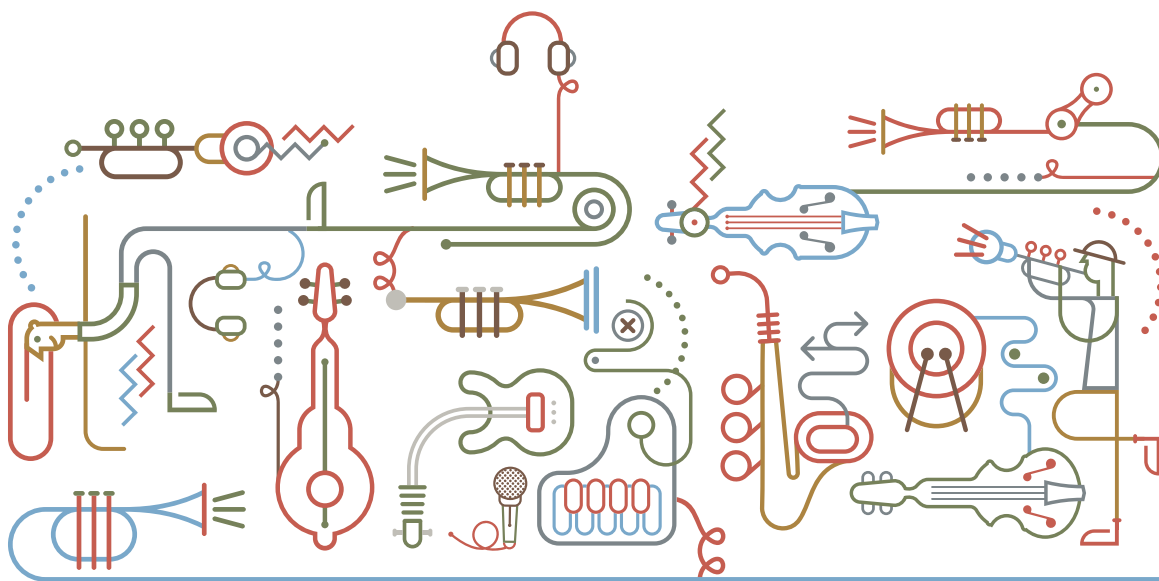
‘한국 정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넓게 해석하면 독자님께서 하시는 모든 작업에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마치 한국인이 치는 베토벤 소나타에는 왠지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응용하자면 국악에 재즈의 요소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독자님의 음악적인 길을 약간 조정하시면, 국악은 지원사업이 많으니 그 부문에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고, 프리 임프로비제이션(free improvisation)의 측면으로 나아가신다면 사운드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음악회(공연), 문화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할 여력이 된다면 퓨전 재즈 팀을 꾸려서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지원사업 중 다원예술이나 전통음악 쪽으

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이 분야는 굉장히 실험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에겐

위험도 기회도 남보다 크다는 것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한국 음악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재즈 오케스트라가 아직 흔하지 않은 이유는 재즈 뮤지션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 분야가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즈는 대중음악에서 그 자부심이 강하고 예술성이 남다른 분야이니, 다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일단 공부하신 것을 토대로 주변의 재즈 뮤지션들과 열심히 교류하면서 정보를 넓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학을 갔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막연함에 답답함을 느꼈던 날들이 기억나는데요, 결국 벼랑 끝에 이르러서야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컸을 때 즐겁게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당장의 금전적인 안정감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길은 만들면 얼마든지 있으니 창의적인 방식으로 헤쳐나가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쓰기를 즐긴다.

블로그
jagto.tistory.com

한국 영화 성장기의 한 풍경

‘충무로 시대’, 영화의 싹이 트다

한국 영화는 2000년대 초에 금융자본이 유입되며
산업으로 발전했고, 2012년 연간 관객 수
1억 명 시대를 연 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연간
1억 명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11월 14일 현재
1억 66만 4590명으로 5년 연속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사진〉 1958년 영화 〈자유결혼〉 촬영 현장.



2006년에 정점을 찍은 후 침체기로 빠져들었던 한국 영화는 기
획력을 앞세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주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영화가 미국 영화에 밀리지 않
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이런 저력은 선배 영화인들
의 노력을 통해 탄탄하게 쌓여왔습니다.

‘충무로 시대’의 시작, 그리고 해프닝

192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한국 영화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은 후 ‘충무로 시대’가 열린 1950
년대 중반부터 재기의 기회를 맞이해 1968년에는 제작 편수가
212편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은 1958년 제작된 조미령, 최은희, 박암, 최현 주연
영화 〈자유결혼〉(감독 이병일)의 덕수궁 촬영 장면입니다. 빛을
가리기 위해 카메라 위에 파라솔을 씌운 모습이 우스꽝스럽지만
스태프들의 열의는 대단해 보입니다.

제5회 아시아영화제 소년특별연기상(박광수), 제1회 국산
영화상 남우조연상(최남현) 등을 수상한 이 영화는 의대 교수의
세 딸이 부모의 중매결혼 요구에 반대하며 자유연애를 하는 내용
을 담았습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소재였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1958년에 74편의 한국 영화가 만들어
졌고, 외화는 150여 편이 수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터무니없
이 많은 영화가 나온 지난 1년은 눈으로 보기엔 제법 풍년이 든
것 같으나 사실상 배는 고픈 현상이었다. 양산과는 반비례로 질
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
국 영화의 문제로 새로운 연구가 부족하고, 창의성과 기획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결혼〉은 비교적 좋은
영화로 꼽았습니다.

최은희 씨는 그해 최고의 여배우로 꼽혔습니다. 남자 배우
중에서는 김승호 씨가 톱스타로 뽑혔고요. 최은희 씨는 단아한
마스크로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무대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돼
좋은 연기를 펼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 여배우로 활동하던 최은희 씨는 1978년 1월에
홍콩에서 납북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해 7월에 남편인
고 신상옥 감독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신필름영화촬영소를 세우고 〈돌아오지 않는 밀
사〉 〈소금〉 등의 영화를 제작한 후, 1986년 3월 오스트리아 빈
에서 북한의 감시를 피해 미국대사관에 은신을 요청하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납북된 후 박정희 정권과 밀월 관계에
있다가 1970년대 말에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자
진 월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놀랄 만큼 성장한 한국 영화의 위상

요즘은 영화 촬영 현장을 보면 잠깐 쳐다본 후 그냥 지나가지만
예전에는 별다른 구경거리가 없어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고 합니
다. 1972년에는 서울 성동구 신당동에서 영화 촬영을 구경하던
초등학생이 사람 사이에 깔려 전치 1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
니다. 이 학생은 〈지프〉라는 영화 촬영을 구경하다가 자동차 충
돌 사고 장면을 찍는 도중 1000여 명의 사람이 몰려서 움직이는
사이 깔렸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와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영화인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영화인들도 한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일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혜택을 주며 외국 영화사의 촬영진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더욱 높아져, 선배 영화인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인 ‘충무로’에서 전 세계 흥행 역사를 새로 쓸 대작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토박이의, '어쩌다 마주친' 연남동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서울이 내 고향이라고 하기엔 별 특색이 없는 흔하고 평범한 동네에서 살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서울의 이미지는 집에서 한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했던 명동이나 광화문, 종로의 모습이었다. 그런 중심지에 가야 정말 서울,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다.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홍대 앞에 가는 일이 잦았다. 홍대입구역 역시 같은 서울 안이어서 집에서는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딱히 잘 아는 곳도 없었지만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모이는 일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하도 가다 보니 내가 살던 동네보다 홍대입구역 출구로 나오면 마음이 탁 놓일 정도였다. 그러다 홍대 일대의 좋아하던 가게, 좋아하던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점이 들어서 그 풍경이 많이 바뀌게 된 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다. 홍대 앞에 대한 예전만큼의 감흥이 떨어질 때쯤, 좋은 기회가 되어 연남동에 작업실을 구해 살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연남동이 어딘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홍대 앞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 주택가에 들어서면 한적하고 지극히 평범한 동네가 나오는데 그게 연남동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가 사이 곳곳에 회사, 출판사, 공방, 작업실들과 작고 아기자기한 카페,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호기심 이마구 생기는 골목이 많은 그런 곳이었다.

평범한 이들의 생계가 열심히 돌아가는 풍경

그렇게 연남동이 내 인생의 두 번째 거주지가 되었다. 요즘은 카페나 맛집이 많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곳이지만 나에게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는 곳이 연남동이다. 내가 사는 3층짜리 작은 건물을 보자면, 2층에는 나와 동료들이 살고 바로 아래층은 중국집, 위층은 가건물 옥탑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였다. 1층 중국집은 수타로 면을 뽑는 집이었는데 아침 7시가 되면 밀가루 반죽을 쿵쿵 내려치는 소리가 모닝콜이 되어 날 깨웠다. 그리고 바로 앞과 옆 건물은 간판을 만들고 수리하는 집, 배달 전문 음식점이어서 오전 오후 내내 웅성거리는 소음과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창문을 열면 건너편 위층에서는 옷을 만드는 공장인 건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밤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다. 그렇게 바쁘고 활력 넘치는 일터와 삶의 현장 틈에서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이러니한 기분과 동시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만화가·일러스트레이터 이윤희의 연남동 정착기

숲길 바깥 쪽으로, 한 뼘 더

연남동은 서울의 걷기 좋은 동네 중 한 곳이다. 최근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엔트럴파크'라 불리는 곳 일대는 산책과 데이트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거린다. 홍대 앞을 자주 오가다 연남동에 정착하게 된 이윤희 작가도 동네 산책을 즐긴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연희동 남쪽 지역'의 풍경은 조금 다르다.

나는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주로 단행본에 들어가는 일러스트 작업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출판사가 연남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편했던 것 같다. 한번은 계약한 출판사가 바로 집 앞으로 이사를 온 적이 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작업이 잘 풀리지 않고 마감이 늦춰질수록 뭔지 모를 압박감이 몰려왔다. 샤워를 할 때 화장실 창문 바로 너머에 있는 출판사를 바라보면 우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완성 후 원화를 5초 만에 건네려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았지만 말이다.

좋아하는 풍경 속에 스며 살아보는 일의 즐거움

마감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서 동네를 걸어 다녔다. 처음에 살 때에는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골목들을 잘 찾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는 내가 즐겨 걷는 길이 생겨나



기 시작했다. 그중 좋아하는 산책 코스는 한적한 주택가를 빠져 나와 예쁜 카페들과 인기가 많은 식당, 맛있는 중국요릿집들 사이를 지나 터널을 통과해 연희동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연남동은 연희동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고 있다. 연남동이라고 분류된 구역은 등성등성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같은 연남동이라도 내 작업실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그 코스를 따라 걸으면서 마주하게 된 것도 많다. 길고양이들이 모이는 카페 앞 화단은 일부러 꼭 지나갔고 오랫동안 비어 있어 풀과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 숲을 이루고 있는 공터를 스윽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언젠가부터 유명해진 파스타집의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할아버지와 마주치기도 했다. 나에게 점차 익숙해져가는 이런 풍경들은 어느새 늘 마주하게 되

는 일상이 되어 없어지면 불안하고 걱정될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해진 일상은 자연스럽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만화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었다. 한 권짜리 만화 작업을 시작할 무렵 연남동에는 본격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이 잘 안 될 때 공사 현장 근처를 산책하면서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만화를 끝내야지.’ 혼자 다짐하기도 했다. 공원과의 경쟁에서는 결국 내가 졌다. 공원은 순식간에 생겨나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물렸다.

요즘은 특히 주말에 사람이 많아서 가게마다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혹시 연남동도 흥대 앞처럼 변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한다. 한때 이곳의 방문자였던 내가 거주자가 되어 살아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걸로만 보던 장소에 정착하고 그곳을 알아가며 익숙해져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글·그림
이윤희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다수의 단행본과
잡지에 그림과 단편
만화를 실었다.
연남동을 배경으로
한 장편 <안경을 쓴
가을>을 지었다.

지금 대중음악의 가장 핫한 장르 ‘힙합’

TV의 ‘컴피티션’이 담지 못한 진짜 힙합은

바야흐로 요즘 음악의 대세는 ‘힙합’이다.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보임은 물론 공익광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도 유명 래퍼가 함께한다. 미국 사회의 차별과 그로 인한 패배의식 속에서 흑인들은 힙합 리듬에 저항과 분노를 실어 노래했다. 지금 우리도 맥락 없는 스웨그보다는 저 위를 향한 다른 이야기를 분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TV는 힙합을 싣고

2016년 한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음악 장르는 두말할 것 없이 힙합이다.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래퍼들의 경연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Mnet)는 평균시청률 2%대(닐슨코리아)를 유지했으며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곡들은 당연하다는 듯 각종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쇼 미 더 머니>가 단단한 구심점을 이룬 가운데 여성 래퍼들의 경연 <언프리티 랩스타>(Mnet)도 벌써 세 번째 시즌을 소화했으며, 60세 이상 여자 연예인들의 랩 경연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 <힙합의 민족>(JTBC)도 적잖이 화제가 됐다. 여세를 몰아 <힙합의 민족>은 현재 각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중이다. 어디 이뿐인가. TV를 통해 얼굴을 알린 힙합 뮤지션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속속 투입됐다. 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연말 가요제를 힙합으로 장식하기로 한 것 역시 힙합이 대세가 된 작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오늘날 힙합의 웅비는 전적으로 TV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가 조명한 탓에 힙합 문화는 우선 ‘줄길 거리’로 다가왔다. 그것도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형태로.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하지만 형체는 무형에 가까웠던 힙합은 우선 생경한 문화로 대중 앞에 선 다음 새로운 음악으로도 평가받았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힙합 음악은 청자들에게 점차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아이돌과의 대척점에 자리한 또 다른 ‘워너비’를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온라인 동호회를 기반으로 태동해 쪽 언더그라운드에서 머물며 여타의 음악과 부러 선을 긋던 그 힙합이 맞나 싶을 정도다.

그러니 이는 TV 때문이기도 하다. 힙합 음악은 경연의 형태로 대중 앞에 나선 덕에 여전히 음악보다는 일종의 ‘기예’로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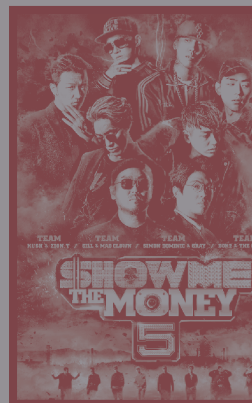
DISRESPECT SWAG RHYME HIPHOP



대통령 당선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엄연한 백인 중심 사회인 미국에서 흑인들이 느끼는 차별과 멸시, 그로 인한 가난과 소외가 자연스럽게 힙합 음악의 다른 줄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랩은 패배의식과 저항감에 기반을 둔 흑인들의 전유물로 향유됐다. 멜로디를 상당 부분 배제한 음악적 이질감 뒤에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성공을 갈구하며, 사회가 바뀌길 바라고, 옳지 않은 것이 사라지길 원했던 발화자 개개인의 희로애락이 오롯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힙합 역시도 인기 래퍼가 랩으로 한글 사랑 캠페인을 할 만큼 프로파간다적 면면이 엿보인다. 실제로 그 어떤 음악 장르보다 길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만큼 CF음악 역시도 랩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니 더더욱 이상하다. 흑인들의 뒷골목에서 싹을 틔워 이윽고 소수자들의 패배감과 저항의식을 담아내던 음악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힙합 문화의 피상적인 면에만 집중한 나머지 래퍼 자신의 부와 명성을 드러내고 여성 혐오와 소수자 멸시를 담아내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가사도 많다. 그러나 동료에 대해 서슴없이 막말을 내뱉고, 오늘 하루 마시고 죽자는 이야기에,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가사가 버젓이 흘러나오는 것치고는 적다. 적어도 너무 적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얘기가 많은 세상이다. 당연히 사랑 이야기도 필요하다. 아름다운 인생을 논하는 것도, 죽자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호전적인 가사 역시도. 그러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할 게 많다. 힙합은 딱딱하게 굳은 기성세대를 향해, 뒤틀린 사회를 향해, 가진 자와 군림하는 자를 향해 저항과 도전, 변화와 혁명에의 바람을 가장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근엄할 필요도 없다. 원래 음악이란 신나고 즐거운 거니까. 이렇게나 차고 넘치는 소재에는 등을 돌리고 여전히 자기연민이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안타깝다. 여성을 향한 패기가 더 높은 곳을 향한다면, 동료나 약자에게 쏟아내는 조롱이 강자를 겨냥한다면 어떨까.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티스트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힙합 아니었을까. ⁵²



저 다가오는 편이다. 좋은 가수가 고작 고음을 얼마나 내지를 수 있느냐와 같은 기술적인 면에 집중한 여타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속사포 같은 랩을 쏟아내거나 강박적으로 압운(rhyme)을 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음악이다’가 아니라 ‘잘한다’가 그에 대한 반응이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험담을 가사화한, 소위 ‘디스(disrespect)’ 문화가 부각되면서 힙합 음악에 대한 관심을 말초적인 데에서 찾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에 욕설,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 때때로 낮 뜨겁기까지 한 자기과시 등에 대한 가사마저 힙합 특유의 자유로움이나 ‘스왑(swag, 사전적 의미는 으스스대며 걸기. 즉 자기과시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로 당연히 용인되어야만 한다는 태도 역시도 안타깝다.

뒤틀린 사회, 변화에의 바람을 신랄하게 노래한다면

본래 힙합은 흑인 빈민가 파티 음악에 뿌리를 둔다. 그러다 발화자의 심상을 그 어떤 음악 장르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발판 삼아 자연스레 영역을 확장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글
강상준
〈DVD2.0〉〈FILM2.0〉
〈IMBC〉〈BRUT〉 등의
매체에서 줄곧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를 썼고,
〈매거진 컬처〉
〈젊은 묵수들〉을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현재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프리랜스 편집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현대음악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

독특한 성적 취향의 막전막후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재 뉴욕 컬럼비아대학 교수인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 그는 얼마 전 결혼과 함께 성적 소수자로서 커밍아웃 했다. 이는 하스의 창작 세계와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아티스트의 ‘고통’은 창작을 위한 숙명일까

억압된 욕망이 분출되지 못하면 예술가는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킨다고 한다. 과연 어느 정도가 사실일까? ‘승화’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부 예술가들이 자신의 고통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흐를지 몰랐던 반 고흐의 작품 속 구불거리는 오솔길은 지평선 근처에 처참하게 끊겨 있고, 판소리의 창을 본떠 산조의 형태로 가사가 없이 연주했을 때에도 소리가 전하던 절절한 사연이 음악에서 그대로

1
하스의 <Streichquartett>
(1998) 도입부 악보 중에서.

2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왼쪽)와 몰레나 리
윌리엄스-하스.

3
하스의 오페라 <Morgen und
Abend>의 한 장면.



Georg
Friedrich
Haas

Mollena
Lee
Williams

1

2. Streichquartett
(1998)

Georg Friedrich Haas
(* 1953)







2



3



스며 나온다. 흑인들이 즐겨 부르던 블루스는 그 우울한 열정 때문에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린다. 차이콥스키와 베토벤은 또 어떤가.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의 음악은 과연 지금과 같았을까? 그렇다면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Georg Friedrich Haas)는 생의 많은 시간 동안 남모를 고통을 숨기며 살아왔다. 올해 62세인 그는 세 번의 결혼생활에서 결국 충족하지 못한 자신의 독특한(?) 성적 욕망을 억압하면서 이를 자신의 작품에 어느 정도 반영했고, 현실에서는 욕망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세 번째 이혼 이후로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살아왔다. 실제 그의 작품에는 극한의 미분음(피아노 건반에서 가장 작은 음정인 반음보다도 더 미세한 음정. 하스는 1/12음까지 사용했다)이 쓰이거나,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음형의 고집스러운 반복이 들어가곤 했다. 또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작품과 어둠 속에서 연주해야 하는 작품을 포함해 연주자가 숨 막히도록 어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등 지극히 가학적이고 고통스러운 작품이 줄을 이었다.

욕구의 봉인 해제(!), 작곡의 순수한 에너지로

그런데 작년 가을 우연히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몰레나 리 윌리엄스(Mollena Lee Williams)와 결혼하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 작곡가 하스의 성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윌리엄스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의 정체는 더욱 수수께끼가 같다. 흑인 여성이면서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권운동가에 가까운 유명세를 얻고 있는 BDSM 활동가다. BDSM은 Bondage(속박), Discipline(훈육), Dominance(지배), Submission(복종), Sadomasochism(가학/피학성) 등의 단어들을 통합한 약자다. 이 단어들을 전부 포함하는 BDSM의 일반적인 의미는 '서로 합의하에 가학적이고 불평등한 역할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이다(이들 커뮤니티는 더 나아가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지닌 성 소수자를 모두 포괄하려 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인 언급은 이 글에선 하지 않도록 한다). 작곡가 하스의 배우자인 몰레나 리 윌리엄스-하스(Williams-Haas는 결혼 이후 바꾼 이름)는 복종과 피학성(마조히즘)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으며 자신을 흑인 여성 노예로 설정하고 역할놀이를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전형적인 마조히스트다. 특이한 점은 자신이 흑인 여성이어서 이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노예이길

바라는)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인권을 지킨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노예의 역할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몰레나 리 윌리엄스가 작곡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를 만난 것은 '노예'인 자신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주인을 만났다는 뜻이고, 하스는 바로 가학적인 역할을 즐기는 사디스트이자 지배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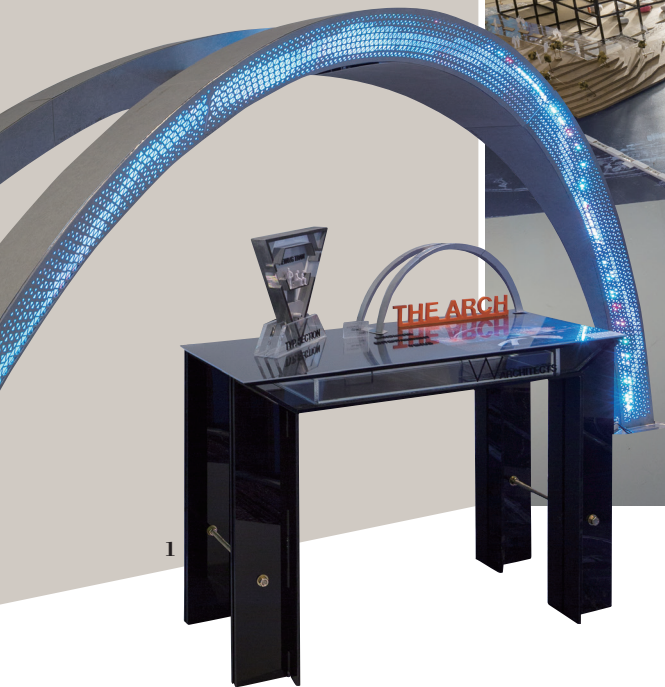
환갑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삶의 동반자를 만난 하스는 그해부터 창작열이 그야말로 '불타올랐다'. 그동안 작곡을 심리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사용해왔다면, 이제 작곡은 그에게 영적인 행위(spiritual activity)에 가까우며 이것이 작곡 과정에 훨씬 수월하고 고차원적이라고 작곡가 하스는 밝힌다. 연주자가 어려운 곡을 연주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긴장된 에너지와, 음악 자체에서 분출되는 순수한 에너지 둘을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전자에 해당되는 작품이 많았던 데 반해 이제는 후자의 에너지가 작곡가 본인이 더욱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후배 작곡가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억압된 욕구의 해소, 창작에 독일까 독일까

작곡가인 필자에게도 이 점이 매우 흥미롭다. 사실 곡을 쓰는 과정에서는 고통(개인적으로는 고독감)을 극한으로 느꼈을 때 비로소 소통의 욕구와 함께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곡의 과정을 심리 치유처럼 여기며 (사실은 곡을 써야 하는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것이었으니, 병 주고 약 주는 것인지도 모를 애매한 상황에서) 눈물 젖은 오선지에 콩나물을 그려가며 커피로 밤을 지새우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겪기 힘든 차원의 희열과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실현하기 힘든 극단적인 가학성이 곡에 스며들기도 하는데 이 점은 개인적으로 하스의 옛 작곡 경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내 억압된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서 해소한다면 작곡가 하스처럼 창작열이 더욱 불타올랄까? 현실이 만족스러우면(고독감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작곡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막연히 두려웠는데, 하스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보니 필자도 작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현재, 곡을 쓰는 일은 육아와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아직도 작곡은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지적 '놀이'다. ³³³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쓰기를 즐긴다.

블로그
jagto.tistory.com



1



2

한강에 건축적인 상상력을 더한다면

한강 '인프라텍처' 상상

여름마다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가을에는 불꽃축제가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준다.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한강 둔치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건축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보자. 한강과 그 주변 자원·공간이 사람과 더 유기적으로 호흡하고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21세기의 한강은 서울에 어떤 공간을 제공할까? 지금의 한강은 10년 전의 한강과는 전혀 다른 공간과 경험을 제공한다. 둔치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는 잘 만들어져 연결되어 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한강시민공원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나 공연을 하고 영화 상영을 할 때의 풍경에는 특유의 생동감이 있고, 서울불꽃축제가 열릴 때면 여의도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한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88올림픽을 앞두고는 한강의 남쪽 면에 올림픽도로가 개통되는 한편 한강 수상스포츠의 활성화도 이루어졌다. 한강 둔치의 다양한 활동은 체육, 보행 활동 등에 의해 빈번해지고 요즘은 근처 학교의 생태학습장 등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여름의 홍수 한 번이면 둔치가 잠기고 1년 동안 가꾸어온 시설과 작업들이 쓸모없게 되며, 불꽃 축제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의해 식물들이 밟히는 수난을 당한다. 한강 물은 물대로, 섬은 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둔치는 둔치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강변의 도로는 도로대로 각각 그만의 논리로 존재해 한강 근처에 모여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성공적인 부분은 자전거길이 아닌가 한다. 한강을 자전거로 다녀보면 둔치와 다리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장치가 눈에 들어온다.

지금 한강과 주변 시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서울의 동쪽부터 한강 일대의 풍경을 살펴보자. 광진교는 찾길 옆에 보행교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한두 번은 재미로 지나갈 수 있지만,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옆에서 소음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한강을 건너는 보행교의 가능성은 열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느낌도 동시에 준다. 뚝섬유원지는 다양한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고가도로 하부의 뚝섬점망문화콤플렉스는 지하철역과 연



한강의 환경에 건축적 상상력을 더하는 ‘인프라텍처’

서울 속 한강은 중심적, 역사적, 그리고 정신적 장소로 기억된다. 그러나 세계 대도시의 강과 달리 폭이 넓은 한강은 강북과 강남의 일체감을 주지 못한다. 강을 따라 난 자전거길이 동서 방향의 동선은 연결했지만, 도심으로부터 남북을 이으며 인프라스트럭처 주변으로 펼쳐지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둔치에 가려면 굳이 빙빙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프라가 단절된 상황에 의한 것인데, 지금 있는 한강의 다양한 시설을 엮어줄 수 있는 구조체 마련이 가능할까? 자벌레 형태의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는 고가도로 하부에서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구조로서 건축과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다. 그렇다면 한강을 남북으로 잇는 구조는 처음부터 건축과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라면 한결 인간적인 느낌으로 한강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아닌 건축(Architecture)과 인프라(Infra)가 합쳐진 ‘인프라텍처(Infratecture)’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상상이 가능하다. 강 주변을 결정하는 인프라와 강 주변에 놓일 건축이 일체화되어 도시와 자연의 경험과 상상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해 3회째를 맞은 한강건축상상전은 1회의 ‘한강 주위 유휴공간의 활용에 대한 탐구’, 2회의 ‘한강이 만드는 감정과 그것을 증폭하는 장소에 대한 탐구’에 이어, 올해는 ‘한강의 인프라텍처 상상’에 대해 탐구했다. 상상전이니만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앞으로 한강 주변의 인프라와 건축이 이랬으면...’ 하고 제안 작품을 내는 전시 형식이다. 전시에는 다양한 인프라텍처가 소개됐다. 4.5m의 육면체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진 보행교(사진 2)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마포대교의 기울어진 구조의 교각은 둔치 위로 연속되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틀이 되기도 한다. 한강에 아치교가 만들어진다면 트램을 타고 올라가 한강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런던과 뉴욕에 각각 가든브리지와 피어55 등 녹음이 우거진 수상 위 구조물을 제안해 공사 중이기도 하다. 한강에도 벽면 녹화가 가능한 모듈로 녹색 다리(사진 3)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한강에서 도심과 같은 복잡한 인프라텍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의 인프라와 물에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장치나 구조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한강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시설 위주의 관점과 더불어,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건축적으로 접근·접목해 주어진 자연환경과 공간 환경이 어우러지는 인프라텍처를 선보일 창의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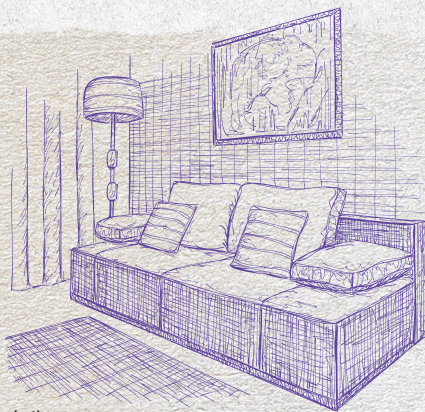
계되어 고가도로 하부를 이용한 전망과 전시 시설로 꽤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는 예전의 빈번한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둔치로 접근하게 하며 자전거와 보행 통행이 한강 남북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곳이다. 말 많던 세빛섬은 주변의 다양한 활동 및 식당과 공연장 사용으로 점점 그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노들섬은 ‘노들꿈섬’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음악복합문화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거창한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이 아닌,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 만들어지는 듯하다. 수도시설을 재활용한 선유도공원은 유일하게 보행교로 연결되어 있는 재생 공원이며, 밤섬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람사르늪지로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쪽에서 강물 위로 전망데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양화한강공원은 ‘머드-인프라스트럭처(Mud-Infrastructure)’라는 이름으로, 여름에 한강이 범람하면 둔치가 잠겨 퇴적물이 쌓이고 그것을 청소하는 비용 등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에 착안해 친환경적으로 강변을 만들었다. 침수가 되고 나서도 물이 빠지면서 진흙도 쉽게 빠지도록 길을 디자인한 것. 유선형의 둔덕이나 길은 모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새로 만들어 자연의 작용을 모방하는 것이다.

한강은 수질도 좋지 않고 빈번한 홍수 때문에 매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서울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며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더불어 끊임없이 상상되어야 하는 곳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글·사진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세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한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낮잠

이소연 작



등장인물 남편, 아내
무대 부부의 집, 거실

빛소리 들려온다. 남편, 제사상을 차리고 있다.
아내, 방에서 나온다.

아내 여보.
남편 잘 잤어?

아내, 잠이 덜 깬 얼굴로 소파에 앉아 가만히 남편을 바라본다.

아내 뭐해?
남편 전이 죄다 으스러져.
아내 부침가루 썼어?
남편 ...아.
아내 (웃는) 그러니까 그래.
남편 그냥 계란물 입히면 되는 건 줄 알았어.
아내 깜박 잠들었네. (다가와 앉는) 누구 제사야?
남편 ...응.
아내 누구데? 해도 안 졌는데 제사상을 벌써 차려. (음식 뒤적이는) 당신 혼자 이걸 다 차렸어?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남편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내 놀랍네. 라면 물도 못 맞추는 사람이.

아내, 거실을 서성인다.

아내 이상해.
남편 (제기 위치를 바꾸어보는) 뭐가?
아내 여기 말이야. 뭔가... 낮설어.
남편 커튼을 바꿔서 그래.
아내 (커튼 만져보는) 당신이 바꿨어? (사이) 여기 있던 꽃병은 어디 갔어?
남편 깨져서 버렸어.

아내 (놀라는) 언제? (커튼 걷는) 커튼도 안 걷고.
남편 당신 자는 동안.

아내, 남편의 옆에 앉는다.
자신을 보지 않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는다.

아내 울어?
남편 (빠내며) 울긴 누가 울어.
아내 낮설어... 당신도.
남편 낮잠 자서 그래.
아내 낮잠... 낮잠을 잤던가 내가. 이상해. 언제 잠이 든 거지? (혼란스러운) 왜 이렇게 많이 잔 거야?
남편 원래 잠이 많아, 당신. (일어서는) 두 시야.
아내 (투정 부리듯) 억울해. 하루가 짧아진 기분이야. (사과 들며) 사과는 공지를 따야지.
남편 여보.
아내 배도 그렇고...
남편 미안해.

사이. 남편, 창문을 열고 담배를 문다.

아내 왜 그래?
남편 윤 작가 만났어.
아내 오늘? 그리고 보니 당신, 오늘 세 시에 첫 공연 아니야? (벌떡 일어서는) 맞잖아. 첫공에 연출이 빠지면 어떡해. (시계 보는) 곧 시작하겠어.
남편 윤 작가랑 작품 들어가기로 했어. 대본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좋은 작품을 나한테 맡겨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랬더니 울더라. 윤 작가가 울었어.
아내 무슨 소리야? 지금 작품, 그 작가님이랑 하는 거잖아.
남편 윤 작가 말이야. 어려도 속이 깊잖아. 정도 많고, 나를 많이 걱정했다더라. 내가 자기 우상이었대. (웃는) 평소 같았으면 헛소리 말라고 한 대 쥐어박았을 텐데, 우니까... 울면서 그런 소릴 하니깐. 간지러운 거 꼭 참고 물었어. 1년 전에 내가 네 작품 맡아 놓고 공연 첫날 도망쳤는데, 그래도 내가 우상이냐고. 우상 삼을 게 없어서 이런 무책임한 연출을 삼냐고. 난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윤 작가가 그러대. 그래서 우상이었다고. 내가 하는 연극은 항상 인간다웠고... 그래서 중심엔 사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날은... 내 세계가 무너진 거라고. 내가 잠적한 1년이,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이, 웃는) 그래, 내가 졌다! 그랬어. 이 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소리지.

아내 여보. 나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가가는) 이상해. 당신이 낯설어.

남편 (담배 끄는) 당신은 매일 한 시 오십칠 분에 일어나. 잠드는 시간은 보통 네 시 반. 가끔은 오십 분. 운이 나쁘면 일어난 지 한 시간 만에 잠들 때도 있어.

아내 뭐?

남편 다만 일 년 내내 같은 건, 당신은 언제나 울며 잠이 든다는 거야. 환한 낮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나에게 말하지. '안녕, 여보.' 그러면 나는 당신보다 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 '일어나, 여보!'

아내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붙잡는다.)

남편 눈 감은 당신을 붙잡고 나는 엉엉 울다가, 일어나라고 뺨을 쳤다가, 미안하다고 부은 당신 볼을 붙잡고 다시 울었어. (사이) 그렇게 일 년을 보냈어.

아내 그만해,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바닥에 주저앉는다. 상에 차려진 제사 음식들을 본다.) 오늘 누구 제사야?

남편 …….

아내 어머니 제사는 겨울이고, 아버님은 정정하신데. (원망스럽게 보는) 왜 상을 차렸어?

남편 여보.

아내, 불현듯 남편에게 달려간다.

아내 말하지마. 말하지마, 여보.

남편 (괴로운)

아내 당신이 말하면, 나 잠이 드는 거지? 당신이 나를 재우는 거지?

남편 (동시에, 따라 읊는) 당신이 나를 재우는 거지?

아내 (혼란스럽게 보면)

남편 일 년이나 연극을 했어. 당신이랑 나랑, 이 대본을 가지고. 어떻게든 결말을 바꾸려고 했어. 당신이 잠들지 못하게 하려고 난 매일을 일 년 전 그날에 살았어. 깨진 꽃병과 똑같은 꽃병을 사서 뒀고, 바뀐 계절을 보지 못하게 매일 커튼을 쳤어. 잠든 당신의 손톱을 자르고, 당신이 입고 잠든 옷과 똑같은 옷을 몇 벌씩 사뒀어. 당신이 일어나는 한 시 오십칠 분만 되면 난…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었어. (사이) 하지만 결말은 한 번도 바뀌는 적이 없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깨달았어. 모든 걸 깨달은 순간, 내게 사과를 하며 스스로 잠이 들었지. 내가 당신을 재웠다

고? 아니, 난 당신을 한순간도 잠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을 재우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날 떠나는 건 언제나…!

아내 나한테… 어제 또 이 말을 했었어?

남편 …….

아내 어제 또 똑같은 말을 했어?

남편 (외면하며) 오늘, 당신이 떠난 지 일 년째 되는 날이야.

아내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

남편 …….

아내 왜 나를 보내지 않았어?

남편 …내가…항상 여기까지였으니까. (보며) 언제나 당신을 보낼 수 없었으니까. 다음 대사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만했으니까. 이 이상은 도저히….

아내, 웃는다.

아내 그랬구나.

남편 여보.

아내 나 전부 기억해.

남편 …무서워, 여보.

아내 당신은 기억해? 내가 당신한테 고백했던 날, 당신이 나한테 키우던 강아지 얘기를 했어. 아주 어릴 때, 반 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버렸을 때… 그때 당신이 한 달을 굶었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사랑하는 건 고통이라고.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는 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사이) 미안해, 여보. 그때 당신에게 무슨 겁이 그렇게 많냐고 핀잔 준 거. 도망치는 당신을 붙잡아 내 옆에 둔 거. 그게 너무 미안해.

남편 알아. 당신이… 그게 맘에 걸려 나를 찾아온 거. 나를 위해 삼백 번이 넘도록 낮잠에서 깨어준 거.

아내 이제 관찮을 거야. (남편 어루만지는) 많이 컸어, 당신. 나를 보낼 수 있을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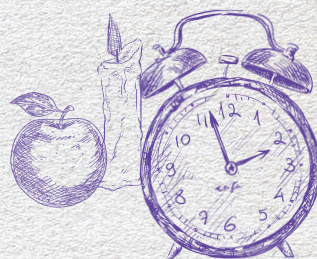
남편 (아주 힘겨운 듯, 그러나 또렷하게) 미안해.

아내 수고했어, 여보.

두 사람, 마주 보고 웃는다.

아내 드디어 결말을 바꿨네.

빛소리 커졌다가, 이내 그친다.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www.sfac.or.kr



굿모닝스튜디오 2016
〈기항지: a Port of Call〉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 12명이 1년 동안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3인의 미술계 전문가가 멘토와 함께 레지던시에서의 경험과 과정을 조명하며 자신들의 창작 영역을 넓히고, 예술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12월 7일(수)~13일(화)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오프닝 12월 7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sacc.or.kr 02-423-6674~5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 문화지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팀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팀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5

- MMCA 전시 〈미각의 미감〉(~17.3.19)
- 네오 색소폰 콰르텟 정기연주회
- 희망한다 콘서트

12

- 서울을 모아줘 참여자 예우프로그램
- 전시 〈몸으로 그리는 마음의 그림〉(~12.17)

19

- 국립합창단 제 165회 정기연주회
- 충무아트센터 월요일N콘서트-커먼그라운드

26

- 백경혜 피아노 독주회

TUE

6

- 전시 김민영 〈Anidrawing〉(~12.9)
- 창무회 김연의 〈金連意의 우리춤 여정-인연〉(~12.7)
- 아미피에 클라리넷 콰르텟 제19회 정기연주회
- 연극 〈빙커 트릴로지〉(~17.2.19)

13

- SeMA 전시 아카이브 1988-2016: 읽기 쓰기 말하기(~17.3.26)
- 창무회 손미정 〈어제의 오늘을 이야기하다-2016년 겨울〉(~12.14)
- 전시 〈점·선·면 Point·Line·Plane〉(~17.4.16)
-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12.22)
- 2016 댄스컴퍼니 더바디 정기공연(~12.14)

20

- 이원국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2.21)
- 국립합창단 제 165회 정기연주회
- 오페라 마티네 〈돈 파스칼레〉
- 국악 아름다운 도전
- 창무회 이미영 〈행간(行間)〉(~12.21)

27

- 말로재즈콘서트 nobody knows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음악극 금시조
- 창무회 김매자 〈춤본-하늘.땅.인간〉

WED

7

- 전시 〈불노장생 프로젝트〉(~12.31)
- 2016 굿모닝스튜디오 기획전시 〈기항지: a Port of Call〉
- 연극 〈내일은 챔피언〉(~17.1.8)
- 창립 70주년 기념 한국성악(학)회 그랜드콘서트 130회 정기연주회
- 운영화무용단 〈사계(四季)〉
- 연희, 타악 〈수어지교-공감2016〉
- 2016 베를린 필하모닉 솔리스트 내한공연

14

- 2016 끝자락 프로젝트 〈낮 가리는 집〉(~12.18)
- 연희, 타악 〈수어지교-연희극 멸미장수〉

21

- 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 연희, 타악 〈수어지교-연희버라이어티쇼 수상한 광대들〉
- 창극 레이디 맥베스(~12.30)
- 게릴라극장 〈빨간시〉(~12.31)
- 2016 끝자락 프로젝트 〈도시 곰 생존기〉(~12.25)

28

- 정미조소극장콘서트 귀로(~12.29)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2016 서울시향의 합창 교향곡
- 〈창무큰출판〉 폐막 갈라 공연

문화가 있는 날

THU	FRI	SAT	SUN
1 ●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12.2)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남산화곡페스티벌2016(~12.10) ●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전시(~12.18) ●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2017.2) ● 활력콘서트, 군기유적전시 전시 <ART Beyond ART>(~12.31) ● 김한결 <낮잠 28분>(~12.4) ● 연희집단 The 광대 <응응 죽겠지>(~12.4)	2 ● 2016 유망예술지원 선정작가 <안유리, 김문정 개인전>(~12.13) ● 서승주 <3rd About Art> ● LEE K. Dance <ZERO>(~12.3) ●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임선휘의 콘서트	3 ● 2016 공동운영단 서브컬처 지원사업(~12.17 매 주말) ● 연극 <위대한 놀이>(~12.29) ●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17.1.21) ● 김재영, 김영옥, 김다미, 박자운 <For Violins>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수석연주자와 함께하는 서울 플루트 트리오 ● 공상 물리적 춤(~12.4) ● 유빈댄스 <맥베스>(~12.4)	4 ● 악기체험공연 <메리크리스마스 악기아 놀자>(~12.24) ●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리사이틀 ● 더 앙상블 프로젝트 정기연주회 ● 챔버 뮤직 투데이 시즌6
8 ● 2016 서울 메세나 감사의 밤 ● 우리춤배틀-더토픽(~12.9) ● 국립극장 <놀보가 온다>(~17.1.29) ● 경기소리그룹 앵비 <리라로요>(~12.10) ● 국립오페라단 로마오와 줄리엣(~12.11) ● 2016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노부스 파르렛 ● 연극 <달의 목소리>(~12.18) ● 연극 <청춘예찬>(~17.2.12)	9 ● 전시 <노인의 시간>(~12.19) ●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왕자>(~12.11) ●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17.1.15) ● 와이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2.10) ● 오페라 <베르테르>(~12.10) ● 연극 <탈출>(~12.25) ● 연극 <재생불량소년>(~12.25) ● 미래의 명곡-가야금양상블 사계	10 ● 무용 <Free Flow in 2016> 우구르, 하카라이넨 ● 뮤지컬 <서울의 달>(~12.25) ● 2016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12월) ● 리틀엔젤스예술단 <천사들의 꿈>(~12.11) ● 제31회 리움무용단 정기공연 <밈 meme>	11 ● 기타듀오 비토 콘서트 ● 2016 그해, 겨울콘서트
15 ● 라이브페인팅페스티벌 <AAA>(~12.16) ● 헤화마티네 with 장일범 <피리부는 아가씨-리코더리스트 염은초&프렌즈> ● 연희,타악 <수어지교-행Show> ● 2016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선우예권 with 앤 마리 맥더모트	16 ● 시민청 <바스락콘서트>(~12.18) ● 백경호 <smile figure(스마일 파규어)>(~12.30) ● 산울림 편지콘서트 ● 연극 <죽마루 아틀리에>(~12.31) ● 아마데우스 라이브 ● 연희,타악 <수어지교-'깽'판-루기들의 반란>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12.31)	17 ● 2016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12.18) ● 여성연희단 노리꽃 <청하다>(~12.18) ● 2016 송년발레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12.25)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연극 <인간>(~17.3.5)	18 ● 원정윤 <그림제작소: 저곳>(~12.22) ● 시민액션밴드 페스타 ● 2016 Steve Barakatt with Band 스티브 바라캣 밴드 크리스마스 콘서트 ● 이정희 현대춤 50주년 기념공연
22 ● 연희,타악 <수어지교-음마 소리를 만들다>(~12.23) ● 2016 겨울국악동화(~17.1.14)	23 ●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4 ● 시민청 송년음악회(~12.25) ● 축제 <따뜻한 연말, 모두의 시민청>(~12.25) ● 정책전시 <꿈꾸는, 따뜻한 서울>(~17.1.31) ● 특별전시 <환상의 숲>(~17.1.14) ● 남산골기획공연 <평통: 그 평안한 떨림>(~12.25)	24 ● 비기너스 선정자 이승한 공연 <다산소프트 컴필레이션> ● 독립장편영화 <그녀와 로켓>(~12.31) ● 꿈의숲 겨울이야기 패키지(~12.31) ● 마리아칼라스홀 <크리스마스 파티> ● 2016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12.25) ● 꿈의숲 '겨울이야기'-해피 크리스마스 워드 웅산	25
29 ●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의 세밀콘서트 ● 2016 서울시향의 합창, 또 하나의 환희 ● 음악극 <시인의 나라>(~12.31)	30 ● 최보련 <지교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 전제덕하모니카콘서트 bye toots ● KBS교향악단 제713회 정기연주회 ● 스트라디움 라이브 -Antonio Yoo&Friends	31 ● 미디어아트 <monster in the city> ● 2016 세종문화회관 제야음악회 ● 2016 국립극장 제야음악회 ● 국립극장 제야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_정광수제>	

01

THU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

서울-베이징 두 도시의 여성 예술가 12인이 선보이는 교류 공동 전시회다. '꽃'을 시각적·개념적·방법적으로 재해석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예술의 시사점을 만들고자 한다. 전통회화, 금속, 도자,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시각예술 영역 작가들이 참여했다.

일시 ~12월 2일(금)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로비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52



남산희곡페스티벌2016

한 달간의 낭독 축제 〈서울희곡페스티벌〉의 마지막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의 상시 투고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로 선발된 신진 작가의 우수희곡 2편과 중견 작가의 신작 1편의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전공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남산포럼-드라마터그 토크'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남산아고라'의 선정작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일시 12월 1일(목)~10일(토)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및 예술교육관 1층 스튜디오

관람료 무료(*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기획전 두 번째 이야기

서울에 대한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하는 메모리[인]서울의 두 번째 기획 전시다. 수집된 목소리로 서울시민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서울의 기억’을 준비했다. 12월에는 ‘인물’을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되며 사진, 영수증, 티켓 등 ‘도시아카이빙키트’를 활용한 기억 정리 워크숍도 열린다.

일시 ~12월 18일(일) *워크숍 12월 3일(토), 10일(토)

장소 서울도서관 1층 메모리스튜디오

관람료 무료 *워크숍 사전접수 02-6237-0715, 참가비 5천 원

문의 sfac.or.kr 02-3290-7043

김한결 〈낮잠 28분〉

공적인 공간에서 '낮잠을 28분 동안 성공적으로 자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퍼포먼스의 기록 전시.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 선정자.

일시 12월 1일(목)~4일(일)

장소 사이아트갤러리, 갤러리너트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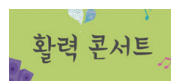
시민청과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가 함께하는 영상 인터뷰 프로젝트 〈7천만의 한국인들 (70mk, people in Seoul)〉은 '서울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아 전시한다.

일시 ~2017년 2월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담벼락미디어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7331



미디어아트 〈ART Beyond ART〉

시민청의 힐링 공간인 소리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다. 영화와 최첨단의 영상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융복합 장르가 감동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컨버전스 아트(Convergence Art)로 만날 수 있다. 컨버전스 아트란 기존 평면의 그림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것을 말한다.

일시 ~12월 31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캠페인 참여 페이지' 카테고리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



연희집단 The 광대 <용을 죽겠지>

연희집단 The 광대가 창단 10주년을 맞이해 선보이는 환상풍자극이다. 설화 속 '미르(용)'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화려한 연희 퍼포먼스로 '환상'을 잃어버린 현재의 우리를 말하며 용을 찾아나서는 이야기.

일시 12월 1일(목)~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70-7695-9770

02

FRI



안유리 개인전 <돌아오지 않는 강>

서교예술실험센터의 2016 유망예술지원(시각) 선정 작가인 안유리의 개인전이다. 2일(금) 오후 5시 오프닝을 진행하며 10일(토) 오후 4시에는 조선족 미술인들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일시 12월 2일(금)~13일(화) 오전 11시~오후 8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서승주 <3rd About Art>

예술가-예술 작품-감상자의 세 구조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대중예술과는 달리, 현대의 순수예술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연계를 중요시한다. 그중 오히려 예술만 바라보며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와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마련된 축제.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 선정자.

일시 12월 2일(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03

SAT

2016 공동운영단 서브컬처 지원사업

10년째 애니메이션 기획공연을 하며 내한 공연을 하게 된 '덕질' 모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메이커 커뮤니티와 아티스트 등 문화예술인과 향유자의 자유로운 예술실험과 활동, 시도를 소개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문화 및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시 12월 3일(토)~17일(토) 매주 주말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8



국립극단 <실수연발>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마무리하며 무대에 올리는 국립극단의 2016년 마지막 작품이다. <실수연발>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으로 슬랩스틱과 언어유희가 주된 특징이다. 서충식, 남궁호 연출이 뭉친 유쾌한 연말 파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

일시 12월 3일(토)~28일(수)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만 15세 이상 관람가

문의 ntck.or.kr 164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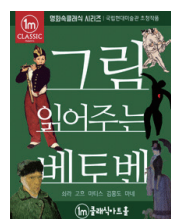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명화를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설로 쉽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명화 속에 숨겨진 작품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며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일시 12월 3일(토)~2017년 1월 21일(토) 오후 12시, 2시

장소 종로구 동숭동 1m클래식아트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1mclassic.com 02-743-5001

05

MON

MMCA <미각의 미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동하게 하는 동시대의 음식 문화에 주목하는 전시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비 행위에서 벗어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식재료의 생산부터 먹거리를 사고팔며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 행위로 '도시'를 재발견한다. 전시 기간 관람객이 참여하는 무대를 구성,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일시 12월 5일(월)~2017년 3월 19일(일)

평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실8 및 기타 공간

관람료 4천 원

문의 mmca.go.kr 02-3701-9500

06

TUE

김민영 <Anidrawing>

난파된 우주선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우주선이 망가져 심해에 빠지게 된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세밀하게 드로잉으로 다루며 동시에 SNS에 전시된다.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 선정자.

일시 12월 6일(화)~9일(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07

WED

2016 굿모닝스튜디오 기획전시**<기항지: a Port of Call>**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 12명이 1년 동안 작업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3인의 미술계 전문가 멘토와 함께 레지던시에서의 경험과 과정을 조명하며 자신들의 창작 영역을 넓히고, 예술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시 12월 7일(수)~13일(화)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오프닝 12월 7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423-6674~5



08

THU

국립극장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온다' 시리즈. '홍보전'을 바탕으로 한 이번 마당놀이는 욕심이 가득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놀보 부부와 한순간에 부자가 된 홍보 부부 이야기다.

일시 12월 8일(목)~2017년 1월 29일(일)

화·수·주말·공휴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경기소리그룹 앵비 <리라로요>**

경기소리그룹 앵비의 노동요 살리기 세 번째 프로젝트. 과거,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노동요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현대의 노동요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았다. 관객들의 이야기로 노동요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8일(목)~1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hanokmaeil.or.kr 02-2261-0500

**우리춤배틀-더토픽**

안무자 이진영, 강환규, 박수정의 서울시무용단 공연이다. 요리의 맛과 장식을 위한 마무리 작업 혹은 '최상의'라는 뜻을 가진 토픽(Topping)은 무용과 타 장르와의 콜라베이션을 말한다. 염색, 영화, 배우가 한국무용에 토픽되며 배우 한예리가 출연할 예정.

일시 12월 8일(목)~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M시어터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66

09

FRI

MEET 전시 <노인의 시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노년을 조망한 자기 초상 전시다. 소외되고 고독한 인간상을 권력을 잃고 무너져가는 노독재자를 통해 보여준다.

일시 12월 9일(금)~19일(월)

장소 대안문화공간 이포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976-4300



새해맞이 그림 선물 축제 <2017 세화전>

9세기 말 통일신라시대의 문배에서 시작된 세화는 그림으로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화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47인의 작가가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아 출품한 작품을 전시한다.

일시 12월 9일(금)~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장소 갤러리 한옥
관람료 무료
문의 02-3673-3426



국립현대무용단 가족공연 <어린이왕자>

2015년 초연 당시 테크놀로지 무대로 화제를 모았던 <어린이왕자>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에는 그룹 WINNER의 김진우가 어린 왕자 역으로 캐스팅됐다. 3D 홀로그램과 역동적인 무대 연출로 어린이왕자를 만나보자. 안애순 연출, 영화감독 김지운 구성·대본.

일시 12월 9일(금)~11일(일) 평일 8시, 주말 2시·6시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kncdc.kr 02-3472-1420



무용 쇼케이스 <Free Flow in 2016>

서울무용센터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선정예술가 우구루(Wooguru)의 신체 프로젝트인 'Free Flow'의 공연이다.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에 기반을 둔 예술교육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가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7시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04-9100



한마음살림장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소통장터. 매월 둘째·마지막 주 토·일요일에 열리는 장터로 다양한 예술 체험과 공연, 전시가 열리고 시민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일시 12월 10일(토)~11일(일) 오전 11시~6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7331



뮤지컬 <서울의 달>

1994년 안방극장을 점령했던 드라마 <서울의 달>이 뮤지컬로 태어났다. 달동네 사람들의 고달픈 서울살이를 표현하며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만만한 청춘의 모습을 그린다. 주요 인물 홍식 역으로 배우 이필모와 허도영, 춘섭 역으로 박성훈과 이승재가 캐스팅됐다.

일시 12월 10일(토)~2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39-1000



SeMA 전시 아카이브 1988-2016:

읽기 쓰기 말하기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SeMA)이 개관한 이래 개최됐던 전시를 선별적으로 조명한 아카이브 전시다. 시대에 따라 미술관의 정책과 역할이 변하면서 전시의 개념과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관과 전시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시 12월 13일(화)~2017년 3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02-2124-8942



전시 <점·선·면 Point·Line·Plane>

조형미술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들인 점, 선, 면을 주제로 한 어린이 전시다. 홍승혜 작가를 초청해 평면 드로잉과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으로 조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평면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12월 13일(화)~2017년 4월 16일(일)
장소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ma.seoul.go.kr 02-2124-5271

15

THU

스테이지도어

〈AAA(Access All Areas): 관객가담전〉

관객과 작가가 함께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축제다. 라이브 페인팅은 시간별로 전시되며 인터넷 방송 BJ의 온라인 중계로 온라인 참가자의 그림이 매핑되기도 한다. 아트 구호물품을 함께 제작, 판매하며 DJ의 음악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댄싱페인팅도 준비됐다.

일시 12월 15일(목)~16일(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17

SAT



2016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한국을 찾아온다.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 줄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비롯해 '아베마리아' '넬라 판타지아' 등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곡과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 크리스마스 캐럴 모음곡 등을 선보일 예정.

일시 12월 17일(토) 오후 8시, 18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1만 원, S석 8만 8천 원, A석 6만 6천 원, B석 4만 4천 원, C석 3만 3천 원
문의 spaentertainment.co.kr 02-597-9870

여성연희단 노리꽃 〈청하다〉

엄마와 나를 위한 여성연희단 노리꽃의 굿 음악 프로젝트다. 안데르센 동화 〈어머니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신, '엄마'를 이야기한다. 엄마의 사랑을 굿으로 풀어낸 감동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12월 17일(토)~18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70-7695-9770



2016 송년발레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00년부터 매년 겨울,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함께 선보이는 대표 연말공연이다.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우는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버전으로 남녀노소 매료시킬 국립발레단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17일(토)~25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C석 2만 5천 원, D석 5천 원
문의 korean-national-ballet.kr 02-587-618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연극 〈인간〉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최초의 희곡이다. 우주의 어느 행성 유리감옥에 갇힌 두 남녀에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2인극이다. 문삼화 연출.

일시 12월 17일(토)~2017년 3월 5일(일)
 *날짜별 시간 다름,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문의 sac.or.kr 1577-3363

18

SUN



시민액션밴드 페스타

소비에 갇힌 대중음악을 살아 있는 생활음악으로 바꾸려는 시민 음악행동 축제다. 시민예술동아리의 저변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2016 시민예술축전'의 4번째 행사로 어쿠스틱, 록, 블루스,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가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며 우수 동아리 3팀에게는 단독 공연의 기회도 주어진다.

일시 12월 18일(일) 오후 3시
장소 플랫폼 창동61
관람료 무료
문의 cafe.naver.com/artsforallseoul 070-4349-3340

원정운 <그림제작소: 저곳>

그림제작소인 '저곳'은 시각예술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작가는 그들에게 '이곳에서 저곳을 상상하는' 물음을 제안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제작해 전시할 예정.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 선정자.

일시 12월 18일(일)~22일(목)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20

TUE



이원국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마리우스 프티파의 버전을 토대로 이원국 단장이 새롭게 구성, 연출했다. 드로셀 마이어의 마술과 태권도인형 등 화려하고 다양한 춤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송년 가족발레극이다.

일시 12월 20일(화)~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seongsu.sdfac.or.kr 02-2204-7570

21

WED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을 주제로 한 서울의 민간 지역문화 활동가 12인의 사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포럼.

일시 12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47

22

THU

축제 <황학동별곡>

'상인이 즐거운 시장'을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한 신당창작아케이드 대표 축제다. 신당동 중앙시장 지하상가가 조성된 1971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최근 폐업한 상가게인 '중앙공예'를 중심으로 기획전시,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와 네트워크 파티까지 진행한다.

일시 12월 22일(목)
장소 신당동지하쇼핑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232-8834

23

FRI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4

문화적 에너지가 모이는 25개 서울자치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담론 순환선>의 4번째 포럼이다. 예술가와 도시, 예술의 가치를 담론화해 얘기를 나눈다.

일시 12월 23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대학로(미정)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96



시민청 송년음악회

2016년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3일간의 특별 콘서트. 23일(금) '꿈꾸는 국악의 밤'을 시작으로 24일(토) '브라보 콘서트',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일)에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청~'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23일(금)~25일(일) 평일 오후 4시, 주말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축제 <따뜻한 연말, 모두의 시민청>

시민청 시민기획단이 만드는 시민 주도 프로젝트다. 나눔과 연말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 교육, 이벤트가 어우러진 축제가 열릴 예정.

일시 12월 23일(금)~25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전시 <꿈꾸는, 따뜻한 서울>, <환상의 숲>

관광과 복지, 일자리에 관련된 서울 정책 관련 전시와 추운 겨울 신비로운 숲 속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전시.

일시 12월 23일(금)~2017년 1월 31일(화)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장소 서울시장 지하1층 시민청 시티갤러리, 시민플라자B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남산골기획공연 <평릉: 그 평안한 딸림>

서울남산국악당의 대표 레퍼토리 <평릉>이 새로운 음악과 영상이 보완된 완결판 공연으로 찾아온다. 삶의 시작과 방향, 소망과 그리움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아리랑, 종묘제례악 등의 한 국음악으로 무대에 올린다.

일시 12월 23일(금)~2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VIP석 5만 원, R석 3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0

24

SAT

MEET 독립장편영화 <그녀와 로켓>

문래동을 하나의 오브제로 바라보고 구성한 픽션 독립영화다. 문래동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공업 종사자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일시 12월 24일(토)~31일(토)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976-4300

28

WED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12월 <정오의 음악회>는 묵직한 국악관현악 곡부터 신명 나는 타악 협주곡, 감각적인 해금 앙상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준비됐다. 작곡가 고(故) 강준일의 '내 나라, 금수강산'으로 문을 열어 민영치의 설장구, 소리꾼 김용우의 협연 등으로 무대가 꾸려질 예정.

일시 12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창무회 40년, 창작춤 40년

<창무른출판> 폐막 갈라 공연

한국 창작춤의 모태가 되어온 창무회의 창단 40주년 공연이다. 10월부터 시작해 12월 마지막 갈라 공연까지 20명의 안무자들이 참여했다. 갈라 공연에는 임현선, 최은희, 윤덕경, 임관규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12월 28일(수) 오후 8시

장소 포스트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changmu.co.kr

31

SAT



제야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_정광수제>

국립극장 '완창판소리'의 2016년 마지막 무대다. 명창 중 드물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창한 안숙선 명창이 나섰다. 분창자 염경애, 서정민과 함께 사설의 내용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정광수제 '수궁가'를 선보인다.

일시 12월 31일(토) 오후 9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okt.go.kr 02-2280-4114



2016 세종문화회관 제야음악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한 세종문화회관 대표 기획공연이다. TIMF 앙상블의 연주와 최수열의 지휘에 소프라노 임선혜, 피아니스트 조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보소리, 첼리스트 문웅휘,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31일(토) 오후 5시, 10시 30분 총 2회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 원, R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4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2016 국립극장 제야음악회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해온 국립극장 대표 연말 공연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유닛(NOK Unit)의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질 예정.

일시 12월 31일(토) 오후 10시

장소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남산희곡 페스티벌

2016.12.01
-12.10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전석무료
사전예약 필수

예약
www.nsartscenter.or.kr

문의
02-758-2150

낭독공연

12.01(목) 20:00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결엔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
김경주 작 / 김민정 연출

12.02(금) 20:00
〈투명한 집〉
윤미희 작 / 전윤환 연출

12.03(토) 15:00
〈누구의 꽃밭〉
이오진 작 / 전인철 연출

남산포럼

12.08(목) 19:00
드라마터그 토크
조만수 김옥란 방혜진
김주연 전강희 김해주

남산아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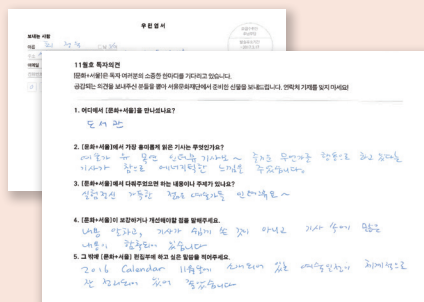
12.10(토) 15:00
〈페미그라운드 -
여기도 저기도 하의 거기도?〉
공동제작
남산예술센터 BIYN 진동젤리

NAMSAN ARTS CENTER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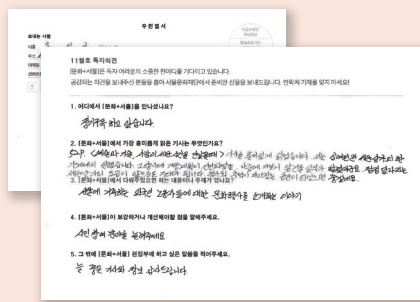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장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도서관
2. 예술가 유목민 인터뷰 기사요~ 즐거운 무언가를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참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주었습니다.
3. 실험정신 가득한 젊은 예술가들 인터뷰요~.
4. 내용 알차고, 기사가 쉽게 쓴 것이 아니고 기사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 2016 Calendar 11월에 소개되어 있는 예술 일정 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최정옥 님



1. 정기구독 하고 있습니다.
2. 52p. <예술과 기술, 사람이 세운 시간을 만났을 때> 기사를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십여 년 전 세운상가의 한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 선언되었죠. 나중에 가보니 앞 건물 일부가 헐렸더군요. 점점 달라지는 세운상가의 모습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사와 추억이 자리 잡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이야기.
4. 시민 참여 분야를 늘려주세요.
5. 늘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허선숙 님

편집 후기

정치 때문에 피곤한 문화의 한 해로 기억될 듯합니다. 내년부터 기쁜 소식만 가득하길...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그 눈 속에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서 있다는 굳고 정한 그 겨울나무가 '궁극의 단 한 권의 책' 이피터미는 아니었을까...
첫눈을 기다린다. 하야 하야니 폭풍 나리는.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슬슬 지치기도 하는 이 시국의 '막전막후'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 오늘 조용히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이준결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Let your heart be light.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문화+서울]은 한 달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권 한 권이 쌓여 2016년이 되었습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예술을 후원하고 키워주신 분들

서울문화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 및 기관

(사)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제로캠프, (재)국립극단, 광주문화재단, 나마스페코리아,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동숭아트센터, 문화융성위원회,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도서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설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유엔난민기구, 조아제약(주), 종로구청, (주)한국씨티은행,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정환재단,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APEX ART(미국),
FAI-AR(프랑스) K3 Tanzplan Hamburg(독일), Lincoln Center Education(미국), Movement Research(미국), Kyoto Art Center(일본),
PMQ(중국 홍콩), REM Theatre(호주)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참여 기업

한국무역협회, (주)로봇에프앤비, (주)삼아알미늄상사, (주)삼진LND, (주)성림예고산업, (주)성일건설, (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아이엠피이씨, (주)에스엔엔지니어링,
(주)엠플랜엔지니어링, (주)영진주물, (주)위드인, (주)위쥬테크, (주)제이투에스 테크놀로지, (주)주신엠에스, (주)태강, 나노조명, 더케이노무법인, 바이올푸드글로벌,
상일전산품, 스타일북, 차미소, 포도디엔씨, 한진중공업

서울문화재단 연계 제휴사업 추진 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고려은단(주), 사노파-아벤티스 코리아, 올림푸스한국(주), 조아제약(주), (주)네오오토, (주)본다빈치,
(주)아모레퍼시픽,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으랏차차스토리, (주)한국씨티은행, 한성자동차

서울문화재단 기타 협력 기업

동아제약, 롯데시네마 장안점, 롯데칠성음료, 봄베이 사파이어, (주)굿윌솔루션즈, (주)오디컴퍼니, 플레이어

개인 소액 기부자(스마트모금함 및 정기기부자)

강은정, 강정향, 강철, 강혜린, 고은채, 권영지, 김가람, 김경은, 김기덕, 김나라, 김나래, 김도균, 김도연, 김동언, 김동우, 김동욱, 김동호, 김미소, 김민건, 김민영,
김민우, 김민재, 김민주, 김성은, 김세림, 김세은, 김소리, 김소민, 김소정, 김솔비, 김영인, 김유정, 김윤경, 김은미, 김정민, 김준석, 김지영, 김진아, 김채은, 김푸름,
김하림, 김현진, 김혜진, 남복심, 남상욱, 남승완, 노영민, 류동민, 류정미, 문영미, 민예지, 박건준, 박도리, 박미리, 박민경, 박민정, 박병호, 박성준, 박소현, 박승철,
박신서, 박영선, 박준형, 박지원, 박진우, 박현숙, 박형주, 변종목, 서복경, 서수덕, 서영채, 성유리, 손한별, 송윤지, 신예찬, 신준, 안서희, 안예슬, 안혜인, 양하영,
오진이, 오현석, 오훈, 용하디, 우보람, 원채영, 유영란, 유진성, 유창호, 유형, 이경미, 이상훈, 이선교, 이성건, 이세영, 이송희, 이수진, 이승주, 이승훈, 이우진, 이은비,
이은영, 이은하, 이의용, 이재성, 이재은, 이정현, 이종환, 이지혜, 이창훈, 이철호, 이충희, 이현우, 이현일, 이혜원, 이혜현, 임대승, 장수린, 장승빈, 장은지, 전가람,
전성지, 전은정, 전화숙, 정다운, 정성열, 정수민, 정유빈, 정유진, 정종철, 정주영, 정태조, 조명환, 조선희, 조아람, 조영광, 조우리, 조하니, 조형준, 지승윤, 진민진,
최병규, 최시울, 최연희, 최윤영, 최윤정, 최장원, 최정원, 최정필, 최진영, 평택, 한경심, 한동훈, 허문도, 현재원, 황빈, 황수민, 황윤아, 황정호, 황현정

시민청 한마음살림장 기부자

곽정아, 구영애, 김민서, 김보량, 김소희, 김윤경, 김혜경, 김호천, 김희연, 남정은, 명하정, 민병희, 박미옥, 박서연, 박효주, 백선수, 백지영, 성정미, 손은주,
송기숙, 신진영, 원선옥, 유은정, 유인지, 윤신애, 윤정민, 이미화, 이설화, 이성은, 이주영, 이현욱, 전혜숙, 정미리내, 정지연, 정혜윤, 지영, 최윤희, 최인영, 황하연



서울문화재단





테마 토크
 다양한 예술 아이디어의 실현법, 크라우드펀딩

사람과 사람
 소리와 이야기를 춤춤히 엮는 아티스트 이자람

진실 혹은 대담
 2016년 문화예술계 돌아보기

쟁점 1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예술가

쟁점 2
 잇따른 성추문 사태로 진통 앓는 문화예술계

화제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문화재단 메세나 프로젝트

공간 1
 서울문화재단-성동문화재단 <2016 성수예술마을만들기>

공간 2
 음악 전문 서점 ‘라이너 노트’

12월의 서울문화매뉴얼